

海清堂

제 12호
불기 2540년
겨울호



松廣寺講院
송광사강원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종교편향교육에 대한 보도와, 분명 잘못되었던 사건을 두고 이를 감싸려는 종교적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종교를 떠나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피교육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판단력 없이 받아들이는 어린이의 경우,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은 매우 크다.

한 스님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무척 조심을 했었다고 했다.

종교적인 훈화로써 아이들을 타이르거나 심성을 교육시킬 필요를 느낄 때는 타종교를 믿는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줄 것을 염려하여 조심하다보니 오히려 타종교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교사라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했었다.

혹자는 '뭐 그리 세심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공인의 입장을 포기하고 종교문제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일부의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찮게 들리는 종교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종교 교육을 꼭 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다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고, 오히려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학교는 공적인 교육기관이지 한 종교인을 길러내기 위한 종교인 양성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어렸을 적 종교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혹 그릇될 수 있는 종교관은 한인간의 평생을 지배하여 배타적인 인격의 인간을 형성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념, 종교, 인종을 초월할 뿐 아니라 모든 생물, 무생물까지도 함께 화합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바로 펴는 것임을 명심할 때, 이런 잘못되었던 풍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또한 종교적 이기주의를 보태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海清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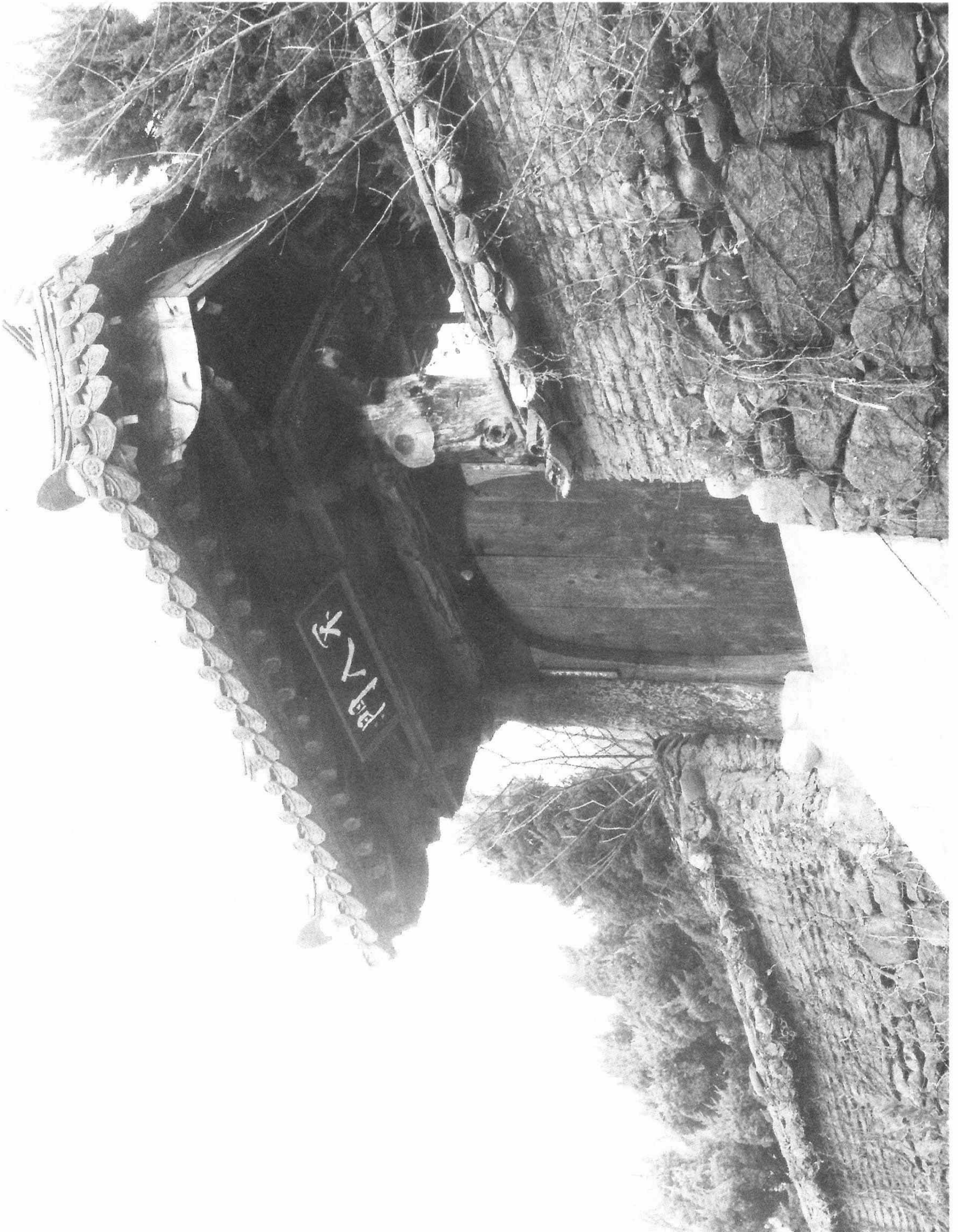
제 12 호 불기2540년 겨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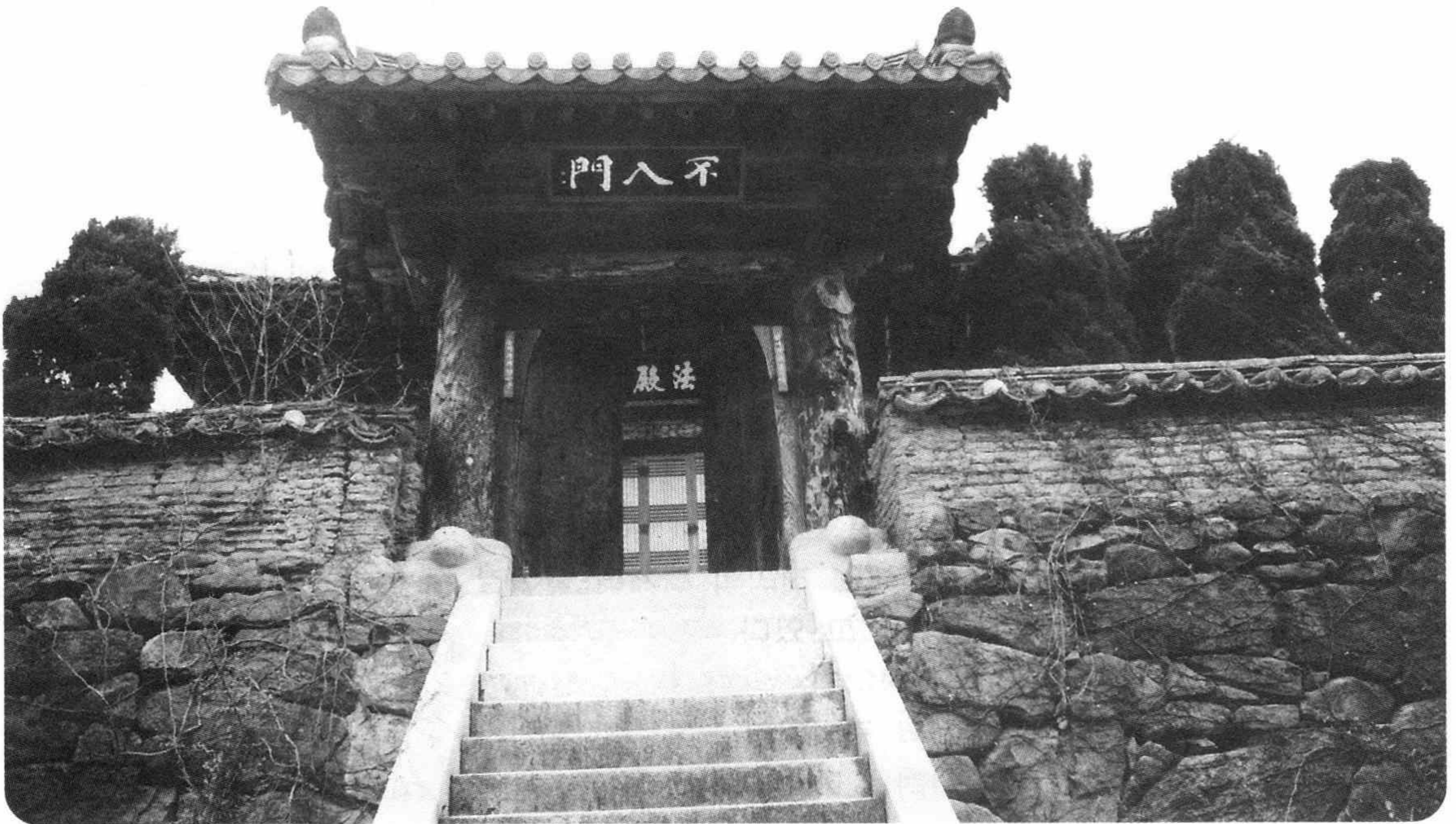
발행처/송광사 강원 · 發行人/智雲(講主) · 편집인/
도제(입승) · 편집장/연각 · 편집/선문, 정원, 월륜 ·
사진 삽화/응진 · 발행일/2541년(음)1월 1일 ·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 755-5300,
5302 · 인쇄/도서출판 보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 (062) 232-6702

차 례



조계의 물소리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사진속이야기	2/불입문	편집부
기획연재 10	4/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지대방 이야기	12/해청당 겨울이야기	일상
	14/출가	성구
	16/죽 두 그릇	일대
	18/12월의 산행	정륜
	20/감울력	연각
특별기획	23/선도대사가 밝힌 정토수행법	편집부
화 보	28/화보와 소식	편집부
편 지	32/사친서 - 어머니께 드리는 글	정원
차수행법	34/차수행에 관하여	선다일미회
원전번역	37/대승기신론중에서	도제
	43/영명지각수선사수계	홍근
경전 한귀절	46/어디로 갈 것인가?	편집부
	47/어려운 일	편집부
	48/편집 후기	
	44/후원 안내	





불입문

한 마음이 아니면 들어서지 못하는 문,
바람은 그저 지나가고,
이미 들어와 있기에 불입이라.
말없이 문여는 당신.

사진·글 : 편집부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5) 捨教入禪

지운/강주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3) 教法은 깨닫게하는 因이다.
 - (4) 教法은 自心을 印可하는 道具이다.
- ※ (5) 捨教入禪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1

둘째의 “문자의 본질이 공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① 만약 교법이 一心이라면 一心이 모든 존재의 성질이며 본질일까? 라는 의문에 대해 모든 존재의 본성이며, ② 교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쳐 보아 존재의 모든 본질을 보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모든 병폐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완

벽한 대안일까? 라는 것에 이 길 밖에 없다라고 지난호에서 설명했었다.

지금까지 이 두 문제는 ‘문자의 본질이 공하다’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불교의 공부는 학문이 아니고 수행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出家者는 곧 求道者이며 修行者이다. 수행자는 학문을 하여 학자가 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웃과 본인의 생사문제를 해결하고자 결렬한 뜻을 세우고 집과 부모 형제를 떠나 출가

한 것이다. 生死문제는 言語以前의 차원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나 문자의 본질이 공함을 알고 난 후에 문자에 의지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고 공함을 모르고 문자에 의지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 머무는 생사의 세계일 뿐이다. 하지만 佛法의 學問化를 수행으로 전환했을 때 그 학문은 반야 지혜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文字가 공한 것을 생각으로 아는 것은 生滅로서 생각의 屬性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공함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문자의 공함을 알 수 있는 것은 내면을 관조하는 수행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자의 본성이 공함을 망각하지 않고 그 '공하다'는 앎이 不變할 수 있는 방법은 生滅하지 않는 마음의 작용으로써 觀照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觀照하여 아는 것과 말이나 문자로 개념화하여 아는 것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몸의 현상이나 심리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명칭을 붙여보면 '마치 무엇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으로서 인식의 결과이다. 이 인식의 결과는 사회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찻잔이라는 사물을 찻잔으로 인식했다면 이 찻잔이라고 하는 인식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경우 알았다고 인정되지만 사회적 인식이 찻잔이 아닌 꽃으로 인식된다면 본인이 찻잔으로 인식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므로 정신이상자로 취급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인식한 것이 사회적 인식과 같을지라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심리현상에 대하여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자신의 인식과 사



회적 인식이 말과 문자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개념화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념화는 하나의 고정된 틀이지만 심리현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와 같다'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지만 똑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내면의 觀照가 깊어지면서 '---와 같다'라는 비유적 명칭을 붙이지만 끝내는 명칭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의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말하자면 관조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저 '앎'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현상에 대해 '앎'이라는 명칭까지 붙일 수 없게 된다. 현상은 공간적으로 실체가 없고 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하지만 그와 반대로 명칭 하나 하나 그 자체가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宗鏡撮要》에서 “有無摠無 身心俱盡 身心盡故

泯齊萬境 萬境無相”¹⁾라고 설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한 현상에 한가지 명칭을 붙이는 것과 ‘앎’이라는 통칭을 붙이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명칭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난 현상과 명칭은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재 수행이 아니더라도 실험적으로 보이는 사물마다 명칭을 붙여가다 보면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대상과 명칭은 별개의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명칭에 해당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명칭만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물이 말과 문자와는 단절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곧 사물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이나 문자는 그 본질이空한 것이며 不立文字라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존재의 실상에 대해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譬喩를 들 수 있다. 말이나 문자의 본질이 空함을 알고 문자에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학문의 차원을 넘어선 수행의 차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講院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강원의 수행은 문자를 의지하므로 ‘生死問題를 해결 못하는 것이다’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이는 강원 교재가 언어문자로 이루어진 경론과 어록이므로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쌓고 그것에 의한 이해력을 증장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교법은 자신의 마음을 印可하는 수단으로 ‘배’ 또는 ‘뗏목’, ‘길잡이’이며, 이 언어의 교법, 문자의 교법으로써 병통을 對治하여 眞實을 보이는 기능임을 살펴 본 바와 같다.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지식을 쌓고 이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無知의 所産이다. 같은 언어문자이지만 교법은 법을 담

고 있는 언어문자이므로 교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禪과 敎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2

셋째, 교와 禪의 관계라는 것은 敎를 버리고 禪으로 들어가는 捨敎入禪을 말한다. 앞에서 말한 바 있는 《宗鏡錄》의 다음 구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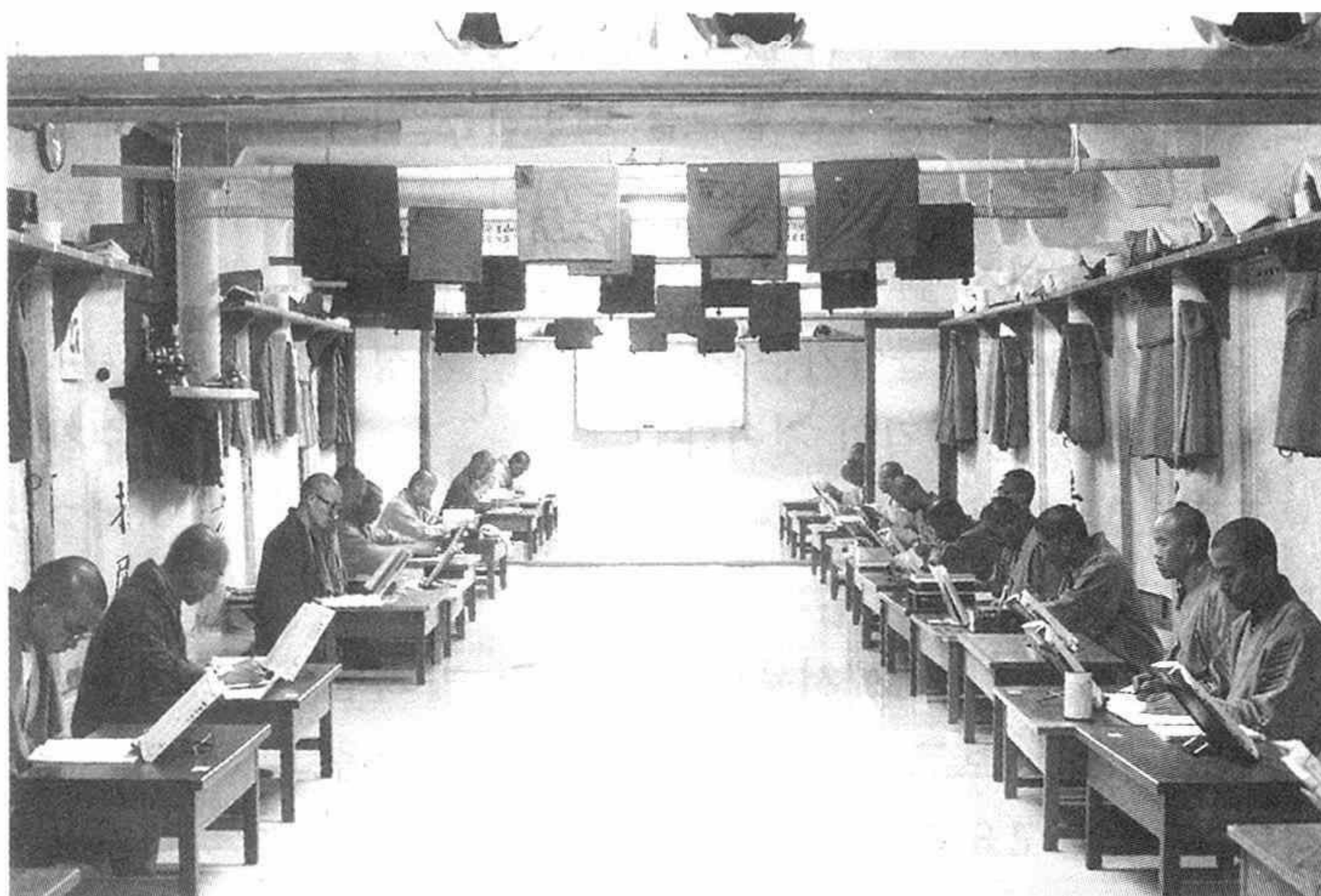
“누구나 문자가 갖고 있는 고정적 틀인, 문자의 성질을 여의는 것이 곧 해탈임을 모르고, 일체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미혹해 마음 밖에서 법을 취하여 문자의 견해를 일으키므로 이제 반대로 문자로써 이 병통을 대치하여 진실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敎가 문자의 견해를 타파하는 성질이 있음을 시사한다. 교의 언어문자가 마음 밖에서 法을 취하여 문자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을 타파하고 마음 안에서 법을 찾게 하는 것이 敎의 성질이다.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란 말이나 문자의 空함을 잘 알며 언어문자를 떠난 實修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원에서 언어문자가 空함을 알고 말이나 문자에 의지해 깨침에 들어가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 수행방법인 看經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간경방법은 바로 捨敎入禪과 다르지 않다.

지혜개발을 위한 교법의 성격은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하는 나룻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법으로서 문자는 因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경전의 문자가 어떤 목적적인 실체

1) 高麗大藏經 木版本 p. 三의 上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의 본질이 有無의 고집을 떠나 假立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실체성을 인정한다면 선과 교의 관계는 처음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언어문자는 그 본질이 空하기 때문에 앞에서 들국화의 비유로 밝힌바와 같다. 그렇다하여 지시하는 성격마저 없는 거북의 털이나 토끼 뿔과 같은 것은 아니다. 경전의 문자가 깨달음의 법(이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네주는 나룻배와 같이 因의 힘을 갖는 것이다. 《楞嚴經》에서는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²⁾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만일 지시하는 손가락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체시한다면 有無의 斷常二見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단상이 견에 떨어진 마음은 제석천궁의 그물망과 같은 법계연기의 中道的 法차원이 아니고 立文字의 관념으로써 자신 내부에 일어나는 독립된 실체로써의 영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말이나 문자를 法의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문자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 어디까지나 法의 차원이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이기 때문에 禪의 영역이지만 教 또한 法의 차원이라면 教와 禪은 서로 이어진다. 이는 禪教가 不二이므로 마음을 깨치는 수행방법으로써 선과 교의 관계에 捨教入禪이라는 훌륭한 수행방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경에서 교법을 강을 건너는 뗏목으로 비유한 가르침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왜 교법만 연구하면 되지 강원에서 禪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팔만 사천의 教法은 신탈 태자가 보리수 아래서 禪定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으로부터 나왔다. 즉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正覺을 이루시고 우다나頌을 하신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³⁾

“실로 열심히 禪定에 들어 있는 바라문에게 諸法이 顯現(pātubhavanti)하게 될 때,
그때 그의 一切 疑惑은 消失한다”
라고 하신 것은

그는 緣起의 法을 깨달았기(pajānāti) 때문에…….

라고 하였다. 이 내용의 메시지는 불교의 始原이 바로 이 禪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망각할 경우 교법을 연구하고 학문하더

2) 卷第二 {如人以手指月示人 彼人因指當應看月 若復觀指以爲月體 此人豈唯亡失月輪亦亡其指}大正藏 第十九卷 p.111上

3) 《自說經》[第一品 菩提品] 南傳大藏經 第二十三卷 小部經典一 p.p.85-88

平 川彰博士還曆記念會(昭和五二年)〔佛教における法の研究〕春秋社 p.58 參照

라도 이를 불교라 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바로 부처님을 등지고 불교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법의引導를 받아 다시 禪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므로 다시 本源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正覺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禪을 제외한 佛敎나 祖敎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佛敎라 할 수 없다.

팔만사천법문이 禪에서부터 나왔다면 부처님의 一代時敎를 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의 마음상태가 禪의 고요함으로 복귀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깨침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교와 祖敎가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捨敎入禪인 것이다. 강원에서의 捨敎入禪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인 것이다. 이는 敎法이 不立文字인 法界一相의 세계를 이야기하므로 禪의 영역인 不立文字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法界一相의 깨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引導하는 因의 성격을 가진 교법이 禪을 지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捨敎入禪이라 하는 것이다.

보통 사교입선이라는 말의 의미를 前後의 시간관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강원생활 四年은 敎을 학습하는 기간이고 졸업한 뒤에 禪院에 들어가는 것이 敎을 버리고 禪에 들어가는 진정한 捨敎入禪의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經論이나 祖師語錄을 知識에 근거한 이해력으로 해독하려 하는 학문의 대상이라 보고 학문연구기관인 강원을 졸업하고 선원에 들어가는 것이 捨敎入禪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결국 강원을 학문하는 교육기관으로 단정짓고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여기고 있었는지

도 모른다.

교법이 언어화한 법이라면 경론이나 조사어록의 문자가 곧 中道요 不立文字가 되어 바로 觀照하는 마음을 頓發하여 깨침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경론이나 어록을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매순간 시간차 없이 순간순간 捨敎入禪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捨敎入禪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보통 강원졸업을 하고 선원으로 가는 것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그러한 관행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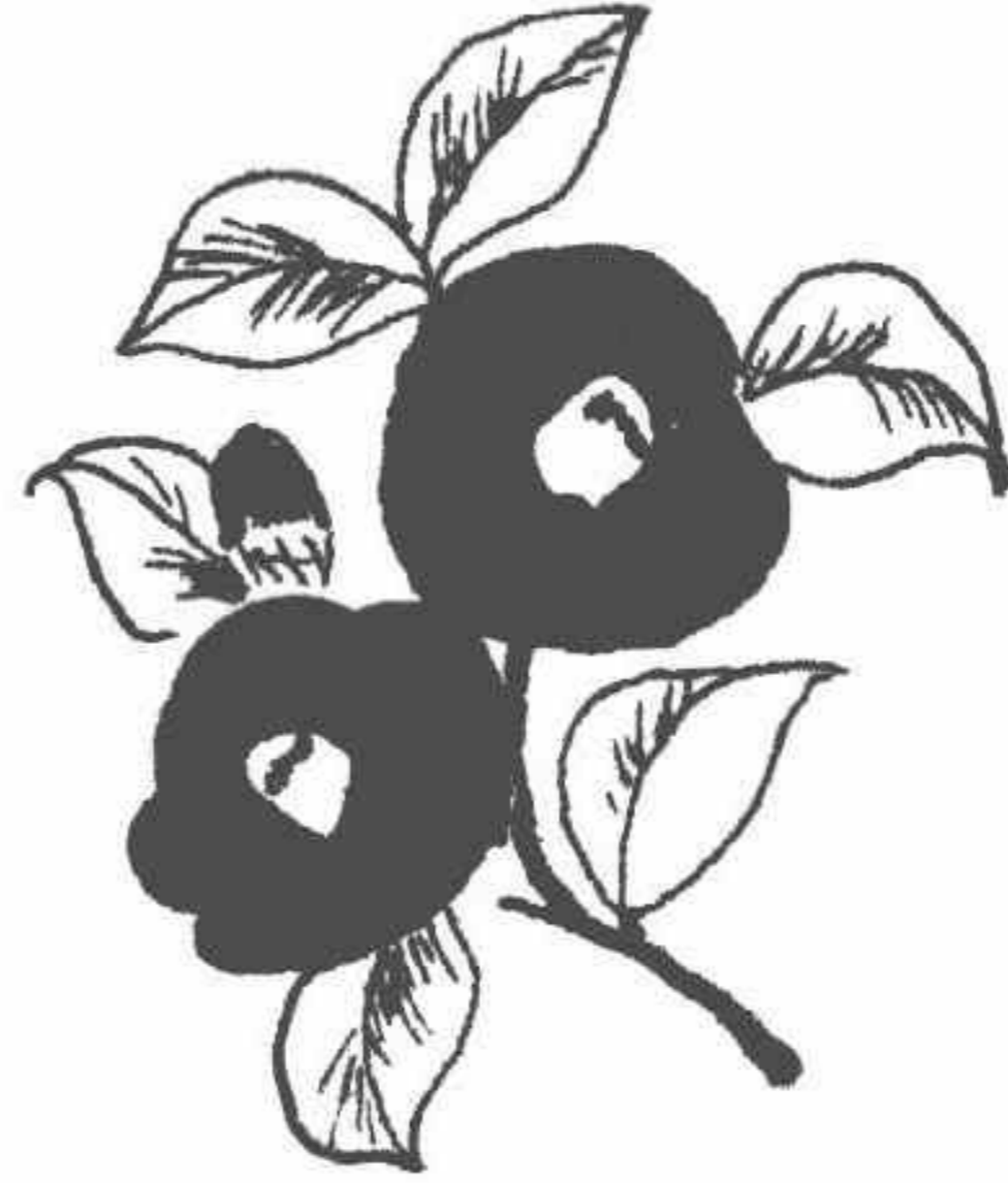
捨敎入禪의 진정한 本意는 교법의 힘에 의하여 언어문자의 벽을 넘어서서 不立文字의 禪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西山大師는 敎를 정의하기를 “말로써 말없는 데에 이르는 것은 敎다”⁴⁾라고 하여 경전의 가르침이 無言의 체험에 이르게 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敎는 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관조의 마음을 돈발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흔히 수행을 禪과 敎로 나누고 禪을 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조속히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불법에서 선과 교의 분리는 있을 수 없다. 법문은 禪 修行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그대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므로 법문 그 자체가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하여 체험한 바를 언어화한 것이 바로 법문이다. 그러므로 교와 선은 깨침과 수행의 길을 제시한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이다. 단지 禪敎를 분리시킴으로써 깨달음을 장애하는 현상이 우리 한국불교에

4) 《禪家龜鑑》以有言至於無言者敎也” 韓國佛敎全書 第七冊(1990년 8월 15일) p.7-635 中

만연된 현실이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하나로 강원은 僧伽 속의 작은 승가로써 출가자의 나아갈 방향과 해야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익히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모든 불교의 전반적인 틀을 세우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은 강원을 '교육기관'



으로 보는 점에서 출가정신을 빗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출가의 조건으로서 戒를 받는 동시에 곧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자가 되기 위해 다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발상은 불교의 기본이념이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사고라고 생각된다.

교육기관이란 곧 대학체제를 말하는 것이며 大學과 講堂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대학이 학문을 위한 전당이라면 강당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 강당에서 보는 履歷은 모두 조사어록과 경론이다. 조계종이 禪宗이듯이 현재 종단에서 曹溪宗旨에 가장 알맞고 합당한 教材와 수행체제를 갖춘 곳은 講院밖에 없다. 만일 강원마저 대학식 체제로 바꾼다면 조계종의 앞날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大學 體制에는 예불, 상강례, 포살, 간경, 발우공양, 대중생활 등의 수행적 요소가 없다. 이는 승가의 제도적 수행방편이 없는 것으로써 불교적인 요소 자체가 없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 승가체제의 불교적인 것이 접목될 경우 기본 승가 체제가 무너지고 변질되어 비 승가적 비 불교적인 현상이 발생됨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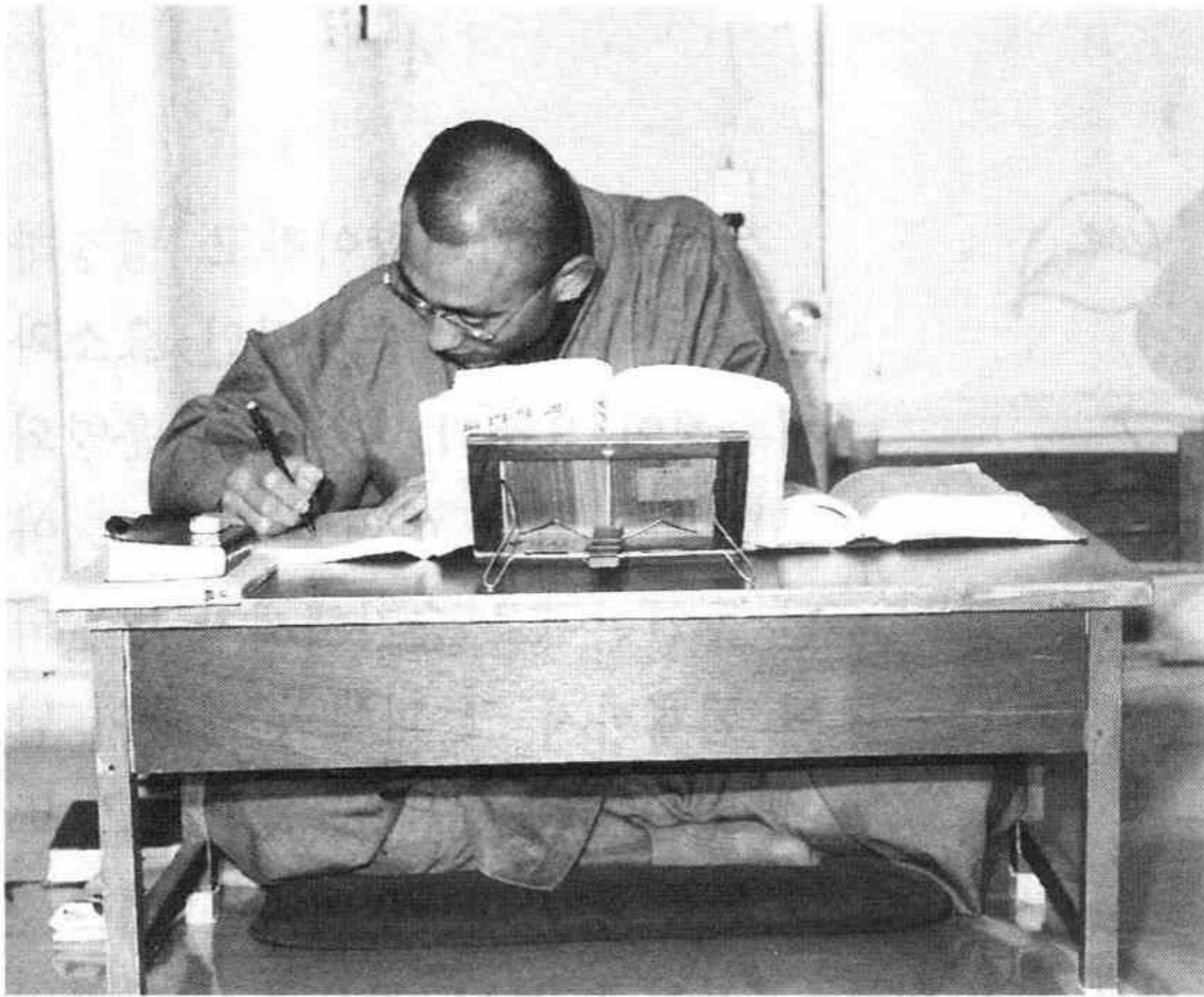
강원을 승가대학이라고 명칭하던 지난 세월에 승가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요소가 혼용되어 운영되다보니 강원도 아니고 대학도 아닌 돌연변이로 승가체제가 변질되어 현재까지 그 피해의 영향이 남아 있는 狀況인데도 불구하고 또

전통 강사 양성기관을 승가대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에는 거기에 맞는 체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이름도 승가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내용만 다르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마치 조계종을 태고종이나 법화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語不成說인 것이다.

이는 不覺인 언어의 세계와 不立文字인 覺의 세계를 혼용한 데서 생긴 오류이다. 일체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언어문자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언어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미혹에 의하여 깨치지 못한 사람의 세계는 世間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어문자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언어문자가 우리들의 인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언어문자가 그대로 이 세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掌中論》에 설하기를,

諸有假設事	모든 존재는 임시로 시설된 현상이니
詳觀自性時	자성을 자세히 관찰할 때에
從他皆假名	저 가설된 현상을 따라 모두 임시로 이름지어진 것이니
乃至世俗境	이것은 모두 세속의 경계에서 말하는 것이다. ⁵⁾

5) 大正藏 第三十一卷 p.884 中



라고 하였다. 이는《華嚴經》卷第十九에 “一切三世는 언어일 뿐이다”⁶⁾라고 설함과 같다.

이와 같이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언어문자는 세간이므로 완전히 깨치기 전에는 깨침의 不立文字와 不覺의 立文字인 세계를 混同하거나 혼용해서는 안된다. 승가는 不立文字의 覺을 추구하므로 여기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승가에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는 명칭은 학문의 立文字의 영역이므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강원은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전통 강사의 양성을 위해서 여기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춘 도량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문 시스템은 격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세속화를 추구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깨닫기 전의 범부의 상태는 세간 언어문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문자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세간에서의 경험은 名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모두 名言種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언종자가 現行하면 바로 實相과 전혀 다른 虛像의 세계

를 만들어 낸다. 그 허상의 세계가 언어의 세계 즉 假名인 세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의 명칭은 오직 학문의 전당인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에 알맞은 명칭이므로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승가대학원의 강의나 생활이 수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대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혼란을 가져오고 승가의 本意인 見性成佛은 불투명해져 불교가 학문하는 곳으로 차원이 낮아지는 비극 아닌 喜劇을 초래할 것이다. 승가에 알맞은 명칭을 찾는 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의 명칭에는 自證分의 개인의 인식에 그것을 증명해 주는 證自證分의 사회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인과 사회가 바르게 상응했을 때 그 명칭은 바를 수 있지만 바르게 상응하지 못했을 때는 왜곡이나 단절, 또는 강한 쪽으로 翳化되어 버린다.

사회적으로 승려는 부모 형제 처자를 떠나서 생사해탈을 위해 출가한 수행자로 인식되는 반면에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는 명칭은 出家가 아닌 在家者의 학문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승가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그 사회적 인식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같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왜곡 또는 세속화로의 翳습이다.

또 승려의 개인적 출가인식의 강원체계가 세간의 재가자 입장인 사회적 인식이 들어가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했을 때, 出家者(個人的 自證分)의 인식에 이 자증분을 증명하는 사회의 在家者的 證自證分의 인식과 하나의 명

6) “一切三世 唯是言說”《八十華嚴經》高麗大藏經 海印寺 木版本 p. 第十九幅前面

칭으로 혼용됨으로써 이 출가자의 자증분과 재가자의 사회적 증거증분과는 서로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 명칭을 거부하거나 단절하지 않으면 출가자 개인의 인식보다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출가자 개인의 출가정신이 퇴화되어 세속화와의 습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출가자의 정신이 재가자의 인식으로 바뀌면서 사회적 인식이 그 출가자의 인식을 증명하는 증거증분이 될 때 이미 출가자 개인의 인식은 재가자로 오염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세속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세속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승가대학이나 승가대학원이라는 명칭은 곧 사회적 인식의 世俗化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학문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는 동대나 중앙승가대학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전통 사찰 안에 위치한 강원만은 세속화되어서는 안되며 佛子라면 누구도 세속화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세속을 불교화하여야 되는데 현대화의 명목으로 불교를 즉 승가를 현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불교의 현대화란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현대적인 것이다.

4

강원의 경론과 조사어록은 모두 깨친 분들의 체험을 언어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에 따르는 지식으로 경론과 어록에 접근한다는 것은 말로써 도달할 수 있는데까지는 가능하지만 言語道斷의 차원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학문은 언어문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문자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학문에는 없으므로 오로지 자기 자신을 비쳐보는 마음은 분별심이 작용하지 않는 話頭參句나 止觀修行만이 가능하다. 이 영역은 지식으로는 넘을 수 없고 반야지혜만이 가능한 것이다. 생사해탈을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자라면 강원에서 배우는 모든 경전과 논서와 어록이 이를 위한 가르침이란 것을 아는 이상 강원은 학문하는 대학이 아니고 수행처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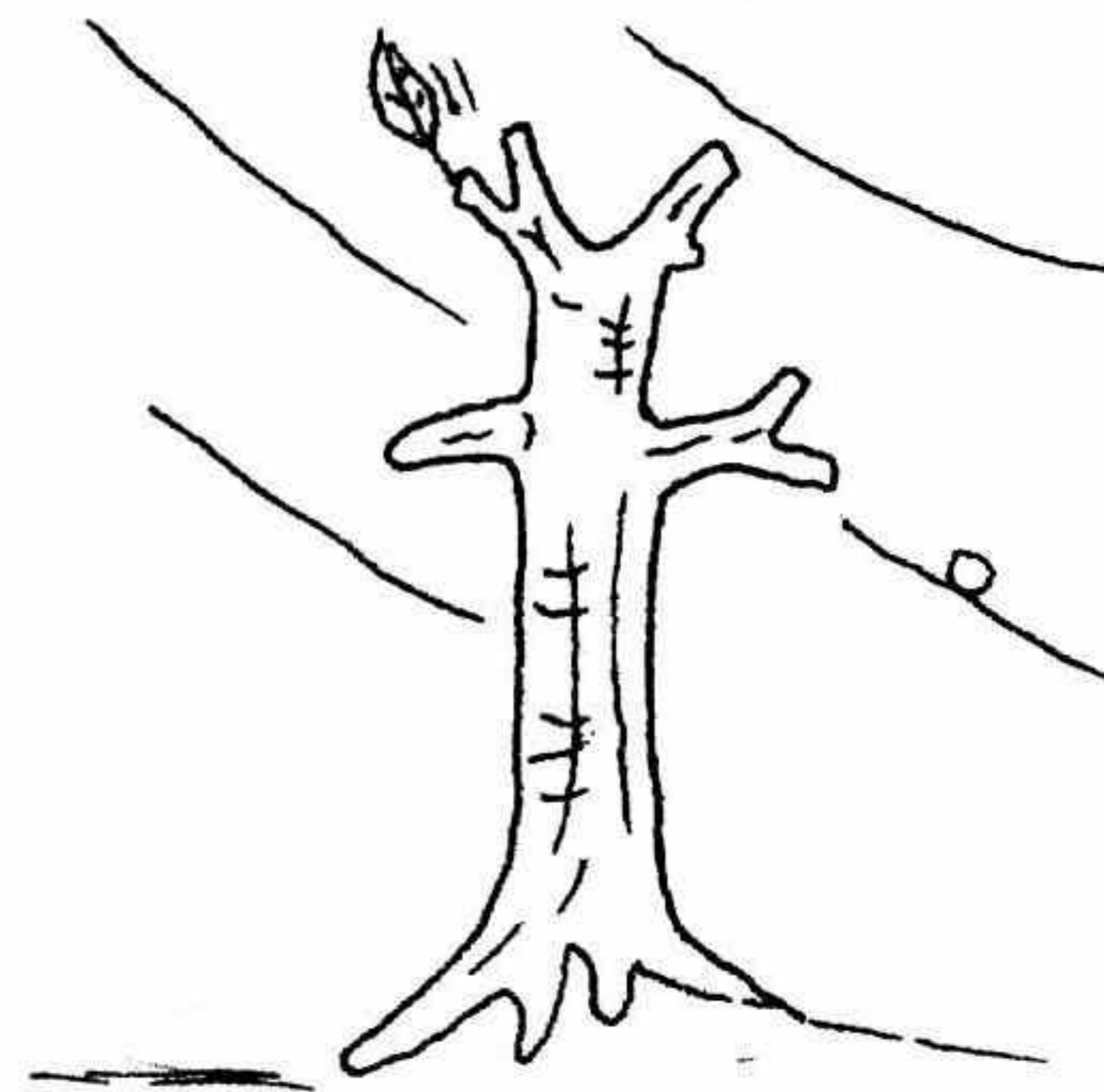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과가 조선후기에 제정된 것이므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학문적 시각일 뿐이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아함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은 조선후기 이전에 결집된 것이므로 현대사회에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같다. 이는 경전이나 어록에 대한 몰이해 내지 불교의 성격을 모르는데서 야기되는 것이다. 만일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불교적 방법은 내면의 회광반조이다. 회광반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경론과 조사어록이고 이러한 교과서를 배제하고 외적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세속적인 발상이며 이는 불교적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을 외적으로 찾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다.

강원의 회광반조는 文字의 본성이 空함을 잘 알면서 문자에 의지하는 방법이 곧 看經이며 看經이 곧 捨教入禪인 것이다. 반드시 강원을 졸업하고 난 뒤 禪院에 가는 것만이 捨教入禪이 아니다. 오히려 禪院은 버릴 教가 없는 곳으로 話頭를 참구하여 一念에 이르도록 정진하는 곳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해청당 겨울이야기

일상/사집



오후 2시 죽비소리와 함께 간경이 시작되었다. 맞은편 치문반 스님들은 난자(어려운 한자) 찾으라, 공책에 베껴 쓰라 여념이 없다.

작년 이맘때쯤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감회가 새롭다. 그 길었던 겨울, 옆 도반스님과 찾은 난자(難字)에 대해 이야기하다 윗반스님에게 지적 받고, 어느 틈에 찾아온 수마와 씨름하다 옆 도반스님이 '쿡' 찌르는 바람에 놀라 눈을 뜨면, 맞은편 윗반 스님들이 싱긋이 웃고 있던 모습이 떠오른다.

웬 난자(難字)는 그리도 많

은지, 찾아 새길 틈도 없이 진도는 나가고, 정해놓은 양만큼 공책에 두 번 쓰고 한번 해석하고 난자(難字) 찾다보면 하루해는 왜 그다지도 짧은지, 새벽예불 시간은 껴입고 쓰고 가려도, 도무지 뼈를 에이는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었다.

어떻게 그 겨울을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득하기만 하다. 하여간 다시 봄은 찾아오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가고 벌써 이번 겨울에도 눈이 두번이나 내렸다. 어느덧 큰방자리도 바뀌었고, 지난해 겨울보다는 추위도 덜하고 생

활하는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앞에 앉아있는 아랫반 스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사전을 들고 즐고, 열심히 간경하다 수마와 씨름을 하고, 아예 화두삼매에 빠져있고, 또 어떤 스님은 몇 번을 지적해도 옆 스님에게 난자(難字)에 대해 묻고, 그 뿐인가 새벽에는 몇 겹을 껴입고 두르고 쓰고 했어도 추위 보인다. 심지어 아예 감기몸살로 구들장을 화두삼매 정진하고 있는 스님도 있으니 치문반 시절이 어렵기는 어려운가보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앞의 겨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자리를 바꾼 나의 이번 겨울도 내일 강의 준비로 바쁘지만,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씩 돌아보는 여유도 생겼다. 그 뿐인가? 오늘은 입승 스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염불습의까지 했으니 여기서 '일취월장(日就月將)'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 모르겠다.

요즘 학인 스님들은 소리 없이 나름대로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강원은 수행도량이다'라고 항상 역설하시는 강주스님의 뜻에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일 게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저 그렇게 자기 수행을 하고 있는 도반 스님들.

관음전, 지장전, 사자루, 효봉영각, 지대방에서 말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회하고, 염불하고, 정좌(定坐)하고, 여래의 밝히신 바 제일의제(진리)를 밝히려 노심초사하는

어떻게 그 겨울을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득하기만 하다. 하여간 다시 봄은 찾아오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가고 벌써 이번 겨울에도 눈이 두번이나 내렸다. 어느덧 큰방 자리도 바뀌었고, 지난해 겨울보다는 추위도 덜하고 생활하는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도반스님의 밝은 얼굴에서 내일의 나의 얼굴을 비춰도 보고 더불어 밝아질 불국토(佛國土)를 그려본다.

특히 올해는 강원으로 쓰일 정혜사(定慧社)가 완공되어 방사도 커지고 보다 더 많은 스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함께 정진할 수 있다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

비록 고요해야할 도량이 매일 같이 망치소리와 여러 기계소리로 요란하지만 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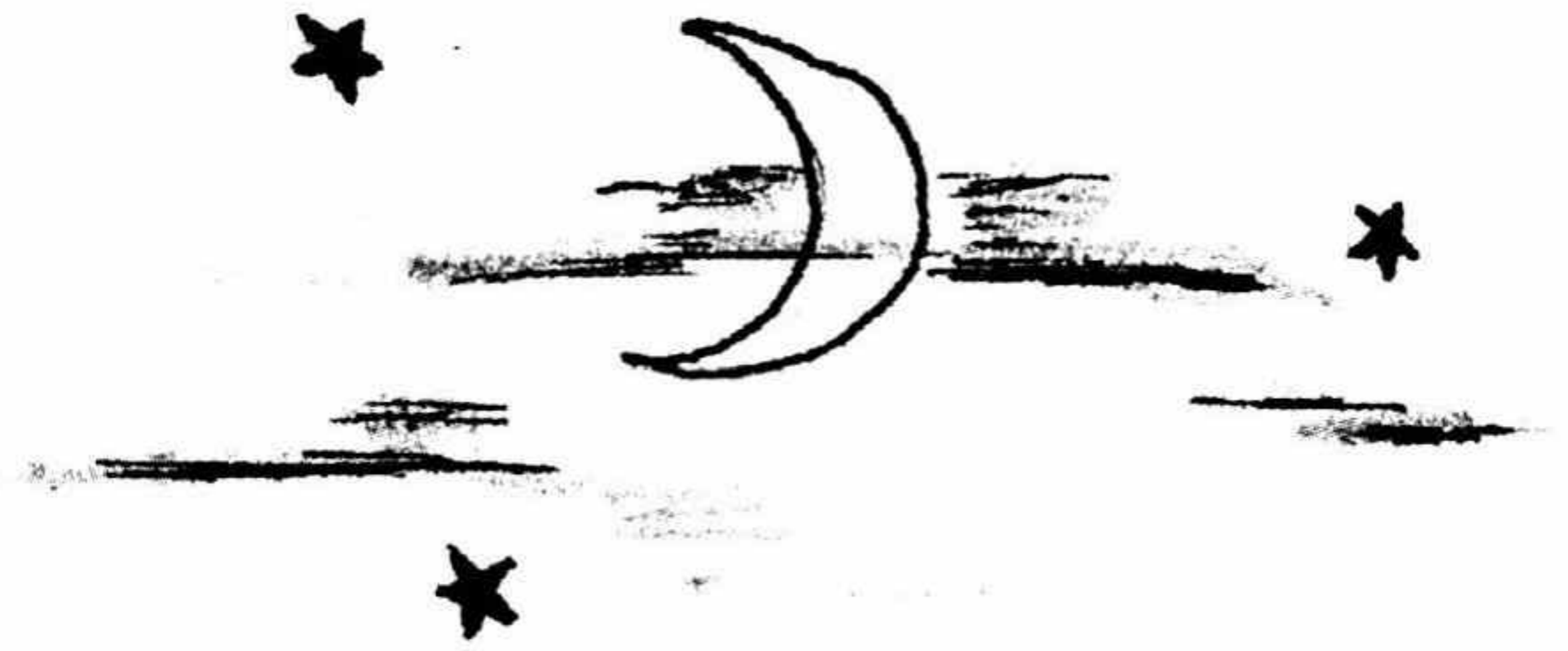
완공될 정혜사를 생각하면 공부에 방해됨도 잊을 수 있다.

어느덧 반결재도 지나고 조금씩 나태해지려는 내모습을 발견한다. 옛날 어느 노선사는 깨치지 못하고 하루해가 지는 것을 무척 통탄했다 하던데, 나는 그저 하루세끼 밥만 축내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도반스님들 처럼 좀더 열심히 생활해야 하겠는데, 지난 겨울이 지났듯이 이번 겨울도 지날 것이고, '내년 겨울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를 생각해보며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를 찾아본다.

출가

성구/치문



3년전, 처음 출가를 생각하게 된 것은,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을 마주보고 있는 자그마한 암자에서 얼마 후에 있을 시험준비를 위해 혼자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 전까지는 절에서 하는 종교행사나 법회에 참석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나는 종교에 대한 신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었다. 단지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동경의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암자에서 4개월 남짓 생활하면서 스님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공부하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되었고 “저렇게 사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서 길도 막히고 인적도 끊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어느 날, 설해목(雪害木)이 부러지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우연히 오래 전에 접했던 법정스님의 책 내용 중의 ‘설해목(雪害木)’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구절이 생각이 났다. 책속에서 단지 추상

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감했었던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났고, 나는 그 때 스님께서 느꼈던 기분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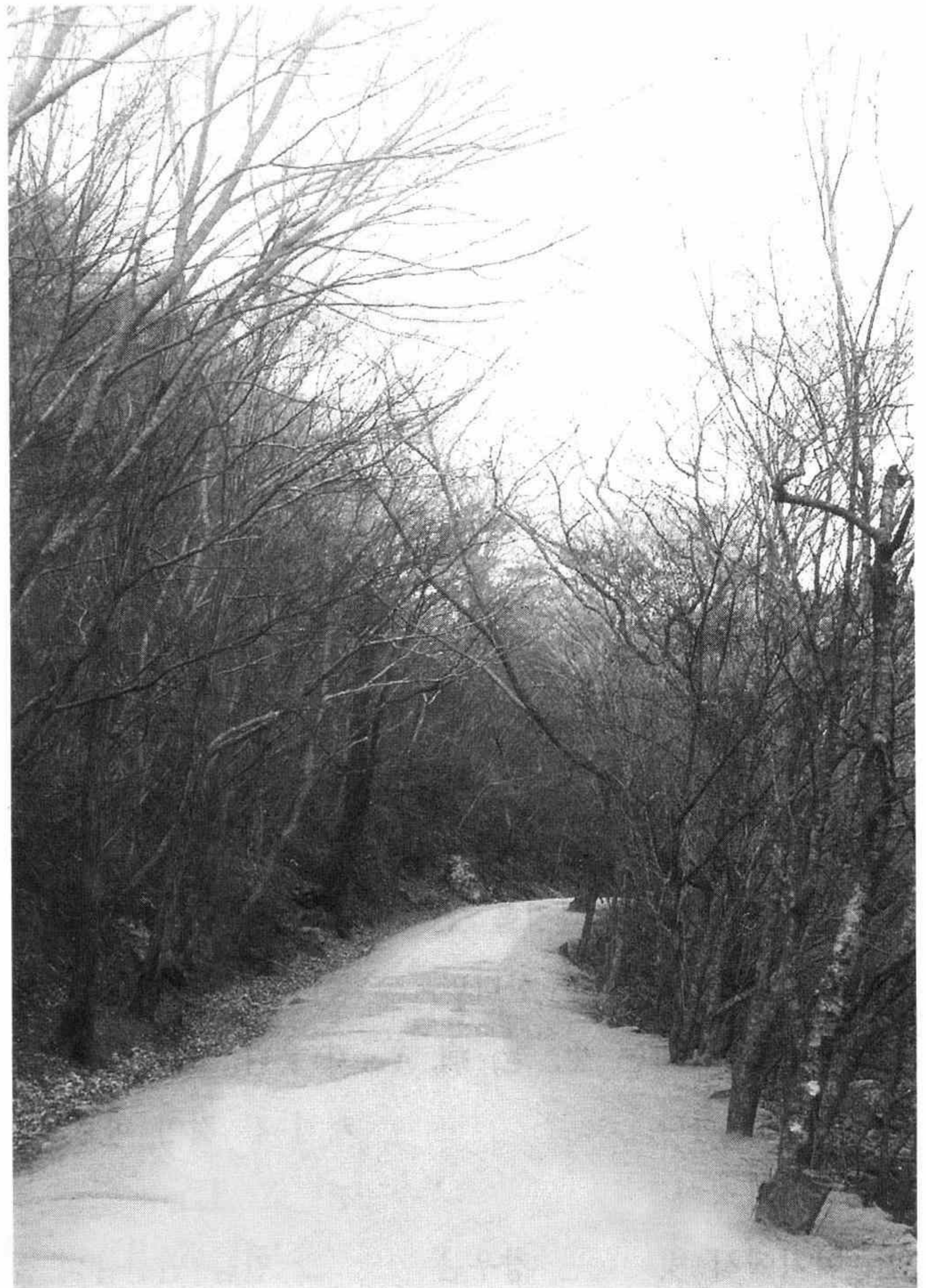
무상(無常)이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생활해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지만 뽀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후에도 잊고 있다가 불현듯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 며칠씩 그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또렷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생각이 정리되어 가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남인 나는 책임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책임회피라는 느낌이 아직 남아있었고,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출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출가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1996년 2월 부모님께 출가할 생각을 말씀드리고 바로 은사스님을 찾아 제주도에 있는 남국선원으로 가서 머리를 깎았다. 다행히 부모님들께서도 신심이 돈독하셔서 생각보다 쉽게 허락해 주셨기에 흥가분한 기분으로 떠날 수 있었다. 약 7개월간의 제주도에서의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고 지금은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1968년이 몸이 태어난 해라면 1996년은 몸에 정신이 찾아든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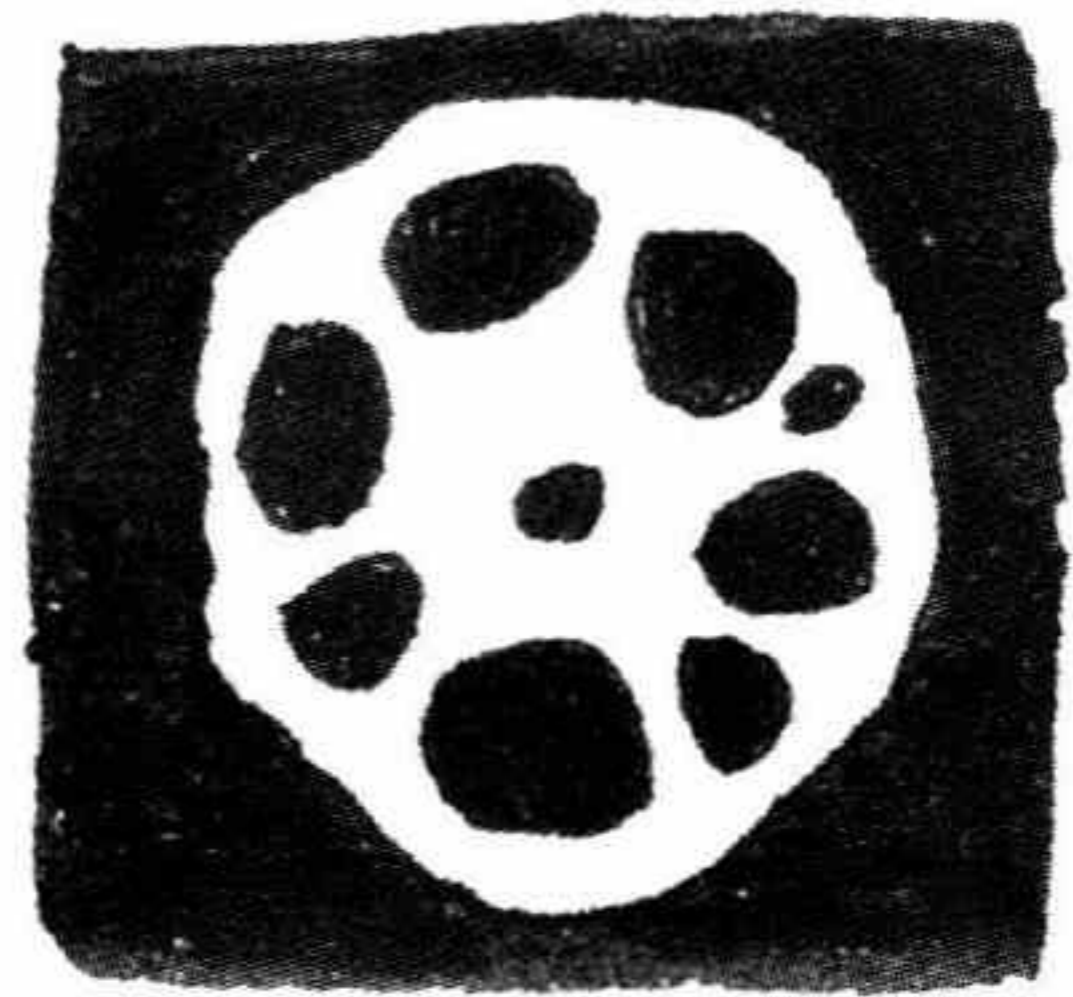
많은 세월이 흘러도 1996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새로 태어난 해였기에 말이다. 이제 1997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올해에는 두 살박이답게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출가를 허락해 주신 부모님

과 은사스님께 보답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면서…….

죽 두 그릇

일대/사집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生, 老, 病, 死라고 대답한다.

삶의 과정이 천차만별이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인간이 희구(希求)하는 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무병장수(無病長壽)하고자 하는 바람일 것이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는 없을까?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그 예로써, 중국 진시(秦始)황제는 늙지 않는 약초를 구하고

자 멀리 우리나라에까지 동남동녀를 보냈다는 기록도 전해져 온다. 그래서 불로초로 알고 캐어 간 것이 바로 쑥이었다는 전설도 있다.

그 만큼 인간들의 삶의 조건들(생로병사)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조건들 가운데 유동적이면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병이다. 그 밖의 것은 일회적으로 다시 경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윤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生)과 사(死)가 일회성을 벗어나지만, 한 생에서 보았을 때는 단 한

번뿐인 것이다.

출가한 스님들도 이러한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얼마 전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을 돌보지 못하여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고 있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망연자실 누워만 있었다. 처음 발심하여 출가한 정신으로 산다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겠지만, 방심한 탓에 몸에 이상이 생겨났으리라 생각했다.

아파 누워 있으려니 몇 년 전의 일이 아련히 떠올랐다.

처음 만행을 한 곳이 설악산 봉정암이었는데, 겨울이라서 감기에 걸려 사흘간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몸살과 두통을 동반한 감기였다. 몇십 겹을 거기에서 뒹군 그런 느낌의 아픔을 맛보았다. 산을 내려와서도 그 후유증을 한 달 이상이나 앓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그때처럼 불안하지 않고 아픈 가운데에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도반이 함께 있다는 것일 것이

다. 여러 도반 스님들이 그 바쁜 강원생활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죽을 두 그릇 쭈어 머리

여러 도반 스님들이 그 바쁜 강원생활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죽을 두 그릇 쭈어 머리말에 밀어 준 정성에 가슴이 저미어져 옴은 왜 일까. 비록 죽 두 그릇이라 남들은 하잘 것 없다 하겠으나, 황금 아니 다이아몬드 보다 더 귀한 도반의 정과 사랑을 듬뿍 받았음이라. 수천, 수억을 갖다 준다해도 이것과는 바꾸지 못하리라.

말에 밀어 준 정성에 가슴이 저미어져 옴은 왜 일까. 비록 죽 두 그릇이라 남들은 하잘 것 없다 하겠으나, 황금 아니 다이아몬드 보다 더 귀한 도반의 정과 사랑을 듬뿍 받았음이라. 수천, 수억을 갖다 준다해도 이것과는 바꾸지 못하리라.

그 덕분에 병을 훌훌 털어버리고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도 강원에서 모범을 보이시며 열심히 정진하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신심을 촉발시킨다.

스님! 정진一如 하십시오.



12월의 산행

정륜/사집



오늘은 규봉 종말스님의 도서를 마치고, 골목재로 산행을 갔습니다. 씩씩이 흐르는 계곡을 거슬러 밝은 양지의 구름을 타고 언젠가는 바다였을지도 모를, 앞으로는 허공일지도 모를, 눈 녹은 질편한 숨같은 흙을 밟고 보니 마음의 짐들이 하나하나 녹아 내렸습니다. 음의 기운이 더 맴돈다는 해청당을 벗어나 이곳 조계산을 둘러보니 초목과 숲의 기운은 밝은 햇살을 타고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물레방아 도는 골목재 보리밥 집에서 된장에 상추쌈을 입이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 더욱 더 풍요로운 자유인을 호흡합니다. 발 한번 떼고 먼 산을 바라봅니다. 저쪽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저 너머에 무언가 놔두고 온 것 같은 아련한 회상. 가슴 한 곳에서 영겁의 세월을 어루어 봅니다.

터져라 집어넣으니 입가에 빠져나오는 된장을 닦아주는 도반스님의 따스한 손길에 둥글둥글 돌던 물레방아도 잠시

멋는 듯 합니다. 앞을 바라보니 온 산이 다 타버린 회색의 모습으로 말라 있습니다. 겨울의 깡마른 산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이파리를 남김없이 털어 내고 털어 내서 태우고 더 태울 것도 말 것도 없는 회색 잿빛으로 뻣뻣한 산등성을 그렇게 비워내고, 어느것 하나 걸림 없이 서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사는 울타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다.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 더욱 더 풍요로운 자유인을 호흡합니다. 발 한번 떼고 먼 산을 바라봅니다. 저쪽너머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 저 너머에 무언
 가 놔두고 온 것 같은 아련한
 회상. 가슴 한 곳에서 영겁의
 세월을 어루어 봅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구고 다음 발을 내밀
 어야 할 땅을 고르면 뜨거운
 열기를 머금은 삭풍은 꺾가
 스쳐 길 따라 쉽없이 붙어만
 갑니다.

길을 걷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웅변합니다. 삶의 수많은
 미로 중에 생명들은 가야할 바
 를 선택하고서 자신의 업의 무
 계를 가늠하며 나름의 길을 정
 해 갑니다. 올곧게 가기도 하거
 니와 때로는 돌아서 가기도 하
 고 또 헤매다 지쳐 쉬기도 합
 니다만, 결국에는 모두가 가야
 할 바를 가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행스럽고 행운
 아인 것은 이 길을 따라가면
 곧 설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
 음입니다. 중의 느린 걸음이 답
 답이라도 하듯 겨울 산의 성찬
 을 허겁지겁 삼키며 발길을 재
 축하던 등산객들이 어느덧 앞
 길 바위에 앉아 노래를 구성지
 게 부르며 보란 듯 나그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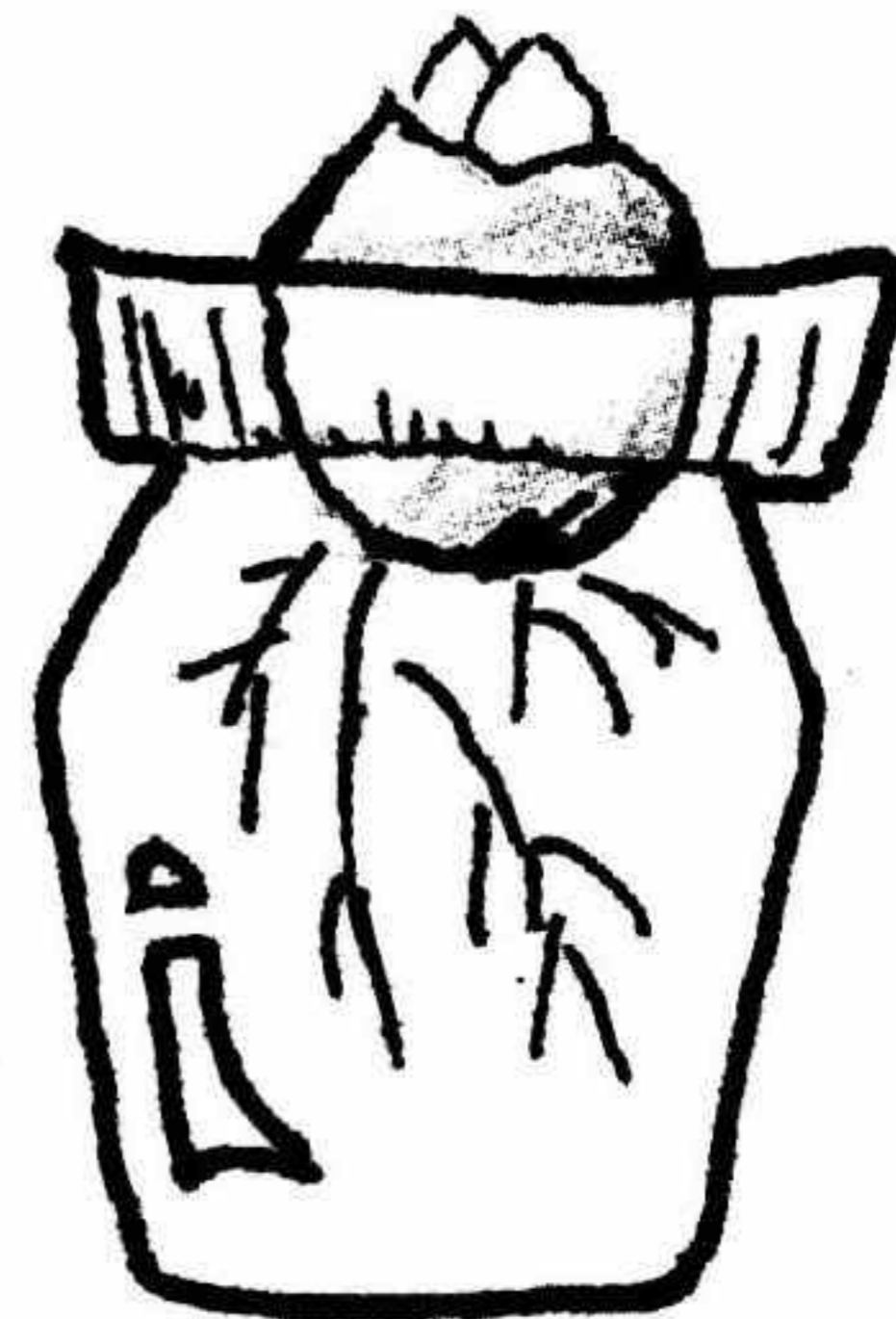
맞이합니다. 마파람의 댕잎에
 춤사위를 맞추려 애를 쓰니 조
 계산은 모든 생명의 몸짓을 안
 고 가는 편안한 눈 산입니다.
 등산로 초입이 멀리 보이는 앞
 길에 도반 스님들이 쉼터에서
 한담을 즐기기에 너스레를 떨
 며 좁은 틈바구니를 비집고 겨
 울의 훈훈함에 녹아들어 갔습
 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길을 떠
 나면 목적하는바 종착점이 있
 습니다. 조계의 양지바른 산허
 리를 돌아온 오늘 내가 쉬어야
 할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북풍에 온밤 떨어
 문고리 잡아가니
 조계산은 천번 무너지고
 만 번을 솟구치네.
 하늘이 내려앉은 마당엔
 강물이 흐르는데
 산등성을 넘는 바람
 어제인가 오늘인가?
 12월의 찬 달 밝고
 그대 길 가는가?

감 울 력

연각/사집



하얗게 첫눈이 내렸다. 온 세상이 마치 하얀 옷을 입은 듯이 본래의 색깔을 감추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는 새하얀 세상도 새롭고,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기분도 좋다. 하지만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예정되었던 감 따는 울력이 연기되었다. 내린 눈이 녹고 쌓이고, 땅이 얼고 녹기를 며칠. 눈발은 멈추고 쌓였던 눈도 어느 정도 녹아 산들이 다시 흠빛을 찾을 무렵 드디어 미루었던 감울력을 한

단다.

두툼하게 옷을 끼여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말로만 들었던 감이 많이 열려 있다는 대원사로 강원스님중 40여명이 출발했다.

연지문을 지나 계곡으로 향하니 아직 흰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계곡 나무 위에 홍시가 빨갭게 많이도 달려 있다.

“와! 감이다”

하지만 막상 나무 밑에 다다라서 나무 위를 쳐다보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어떻게 따야 하나, 나무 위에 오르기도 애매하고, 대나무로 가지를 때려 보

자니 너무 높이 달려 있고, 잘 익은 홍시라서 땅에 떨어지면 온전할 리도 없을 성싶고.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 행동파(?) 스님들이 장대를 들고 나무를 탔다. 장대로 힘겹게 허공을 휘저어 가지를 치니, 떨어진 감들은 반이상은 터져버린다. 다행히 눈 위에 떨어진 감들만이 눈 속에 몸을 살며시 감추니 겨우 부상을 면했다.

얼마 후, 나무 잘 타는 스님이 한 분 더 우리편에 합세하여 엄두를 못 내던 나무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나란히 서 있는 감

나무의 한쪽을 시원하게 감비를 내려놓으니 밑에 있던 스님들은 감을 줍기 바쁘다.

다른 나무에 비해 유달리 컸던 감나무여서 감도 또한 많이 열렸었는데, 한쪽만 따고 나니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가!

옆에 나무로 옮겨가서 다시 감을 따기 시작한다.

감을 줍느라 정신이 없을 무렵 갑자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 됐다.

무의식적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나무 위엔 아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스님들 표정이 바짝 긴장되어 있다.

“스님 괜찮아요!”

“스님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있으세요”

스님들이 나무 밑으로 모여 들었다.

조금 전까지 나무 위에 있던 그 스님은 나무 밑에 그대로 엎어진 상태로 요동도 않고 있다.

계곡 위에서 감을 따고 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뛰어와서 부목을 가져와라, 목도리를 벗어라, 지시하며 환자를 운반할

“와! 감이다”

하지만 막상 나무 밑에 다다라서 나무 위를 쳐다보니 엄두가 나질 않는다. 어떻게 따라야 하나, 나무 위에 오르기도 애매하고, 대나무로 가지를 때려 보자니 너무 높이 달려 있고, 잘 익은 흥시라서 땅에 떨어지면 온전할 리도 없을 성싶고.

준비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다른 스님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드디어 운반 준비가 다되고 나무에 오를 때 썼던 사다리에, 아래 절에서 가져온 스티로폼을 까니 운반 들것이 마련되었다.

스님을 운반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된다.

이 몸뚱이의 나약함도 느끼고, 한 나무만 따고 내려오게 할 걸 하는 생각도 들고, 그저 모두들 할 말을 잊은 채 주차장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20분쯤 지나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하고 스님은 병원으로 실려 갔다.

“조심하세요”

“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위험하대요”

“감나무에 떨어지면 큰일 난데요”

말들은 많이 했지만, 그 말하는 말들이 절실하지는 않았었다.

그저 그렇게 알고 있을 뿐 체험해 보지 않아서, 어쩌면 형식적인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이왕 올라갔으니 모두 흔들어 버리고 내려오소!’ 하는 욕심이 더 했을지도 모른다.

사고를 당한 스님도 “괜찮아요! 인명은 재천이에요. 한 두 번 나무 타보나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 생각 없이 던져졌던 말들이 순식간에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순간에 사고로 인하여 의미 없던 말들이 비장한 의미로 모두의 가슴에 저며왔다.

부디 부상이 심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돌아오는 버스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가득했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새겨보게 됐다.

아무리 간단한 지식도, 듣고 들어 귀에 박혀 있던 지식도,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은 진정 아는 게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그 누가 감나무가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는가?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 누구도 알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머리로만 '위험하대요' 되내졌을 뿐일 수도.....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 중생의 세계.

불교가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로써 수행하는 승가 조직을 여태껏 유지해 오고 있는 당위성을 뼈저리게 느낀다.

아직도 무명 속에 잠겨있는 나는 얼마나 수행해야 공적영지의 경지가 드러날지?

오늘따라 부처님이 더욱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러움이 환한 모습으로 가슴을 채워왔다.

큰절에 돌아와 온통 사고 현장의 분위기가 큰방을 가득 채우고 있을 무렵,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나오니 사교반스님 한 분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며 찰중스님을 부른다.

순간 집중된 스님들의 시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무데도 이상이 없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더 있어 보기로 합니다.”

“정말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을 되물던 스님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천만 다행이야”

“그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마디씩 하는 스님들의 말 속에 안도의 한숨이 배어 나온다.

“스님들! 다음부터는 위험한 곳엔 가지 맙시다.”

“스님!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어디가 안전한 곳이던가요?”



선도대사가 밝힌 정토수행법

정토 수행하면 우리는 대만불교를 떠올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낯설다는 느낌이 먼저 든다. 마침 염불선으로 새롭게 수행방법을 펼치고 계시는 대원사 주지스님(현장스님)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 소개하는 법문은 선도스님의 “관념미타법문(觀念彌陀法門)”에서 옮긴 것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금빛 몸을 관하면서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삼매에 대한 공덕을 적은 귀한 법문이다.

이 수행법은 선도스님께서 손수 닦으셨고 수많은 정토수행자들이 크나큰 가피를 입은 수행법이라 한다.

이를 통하여 불교의 또다른 측면을 밝혀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정리 : 편집부〉

1.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에 따라 부처님을 보는 삼매의 방법을 밝히다.

보아라, 저 티없이 맑은 금빛의 몸을.

보아라, 저 눈부신 님의 몸을.

보아라, 조출하고 고옴기 그지없는 빛의 몸인 저 아미타 부처님을.

수행자들이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나 그대의 눈과 마음이 밤낮없이 금빛의 몸, 눈부신 부처님의 몸만을 향하도록 하라. 움직일 때도 멈출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그대의 눈과 마음이, 조출하고 고옴 빛의 몸 아미타 부처님만을 향하도록 하라.

수행자들이여, 순간순간 살아나는 그대 그리움의 눈으로 연꽃의 나라인 극락정토를 보아라. 순간순간 살아나는 그대 그리움의 눈으로 거룩한 이들의 금빛 웃음을 보아라. 순간순간 살아나는 그대 그리움의 눈으로 극락정토의 맑고 묘한 모습과 소리를 보아라.

그리움의 바다 위로 피어 오른 그대 수행자들이여, 서리 하늘 아래 잎을 터는 가을 나무처럼 슬픔도 기쁨도 다 놓아 버리고 바로 그 곳에 앉으라. 새벽 별빛을 밝히고 앉으신 부처님처럼, 더없이 편안하고 기꺼운 금빛 웃음을 깔고 바로 그 곳에 앉으라.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리고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위로 올려두라.

오른손은 왼손바닥에 편안히 올려두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만히 마주 대라.

몸을 단정히 하여 바르게 앉고 입은 지그시 다물라. 눈은 감은 듯이 뜨고 뜬 듯이 감을지니, 수행자여 이 곳에서 그대 마음의 눈이 열리리라.

열어라, 마음의 눈을!

이제 열린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의 머리를 보아라. 아! 부처님의 머리여. 금빛 살갓에 감청빛 머리카락이여. 머리카락마다 안개 흐르듯 왼쪽으로 돌았구나. 아! 부처님의 머리뼈여, 설산의 만년설인가. 안팎이 하나 같이 희고도 맑아라.

그대 해맑은 마음의 눈이여, 희디흰 부처님의 뼈를 지나서 보아라. 유리처럼 맑은 부처님의 골을 보아라. 부처님의 골에는 노을빛 열네 가닥의 핏줄이 있도다. 핏줄 하나하나마다 열네 가닥의 빛 줄기가 터져 나오는 도다. 아!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보는가. 이 눈부신 빛의 행복을. 빛은 머리카락 뿌리로 나와 소라 머리카락을 일곱 번 돈 뒤 다시 머리카락을 돌아 노을빛 핏줄로 되돌아가는구나.

그대 별빛같이 티없는 눈이여, 보이는가? 부처님의 골을 밝히는 핏줄기 하나가 두 눈썹의 털뿌리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부처님의 이마여, 풀밭처럼 넓고 부처님의 눈썹이여, 높고도 긴 것이 초생달과 같구나. 아! 백호상이여, 눈썹 사이에 돌아 감긴 희디흰 털이여. 흰털은 속이 비었고 눈부신 금빛의 광명이 이 곳에서

터져 나와, 오호라, 작은 내 몸을 끝없이 비취 주시는구나!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의 백호상을 관하는 수행을 하면 백호에서 터져 나오는 빛을 보든 보지 못하든 이 사람은 바로 구십육억 나유타 항하사 미진수 겁동안 나고 죽은 무거운 죄가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다.”

행복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수행을 지어 가면 모든 업장과 무서운 죄는 사라지고 끝없는 공덕을 얻게 되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없이 기뻐하실 것이다.

부처님의 몸을 순례하는 그대 행복한 수행자여, 다시 보아라. 부처님의 눈을 보아라. 바다같이 맑고 큰 눈이여 희고 검음이 뚜렷한데, 눈부신 빛 바람은 끝이 없구나.

부처님의 코여, 금빛으로 빛으셨나 높고도 곧고, 부처님의 얼굴이여, 둥글고 고르어 흠이 없구나. 부처님의 귀여, 귓볼은 늘어져 어깨에 닿고 귓구멍에 일어난 일곱 가닥의 털 속에선 빛 줄기가 터져나와 부처님의 몸을 비추는구나.

부처님의 입술이여, 붉고 맑고 빛나고, 부처님의 이빨이여 희고도 고르고 빈틈이 없으니 하얀 마노인가 안팎으로 맑구나. 부처님의 혀여, 얇고 넓고 길며 부드럽구나. 혀뿌리 아래로는 두 가닥의 구멍이 있어 황금빛 침이 염통으로 흘러가도다.

행복한 순례자여, 보아라. 맑은 눈으로 부처님의 염통을 보아라. 붉은 연꽃 같은 님의 염통이여. 피는 듯 오므린 듯 연꽃 같은 부처님의 염통이여, 아침 햇살처럼 붉은 연꽃은 팔만 사천의 꽃잎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구나. 잎잎마다 팔만 사천의 핏줄이 돌고 핏줄마다 팔만 사천가닥의 빛 줄기가 터져나오는구나. 보는가? 순례자여, 빛 줄기는 저마다 눈부신 연꽃을

피워내고 그 빛의 연꽃 속에는 더이룰 것 없는 거룩한 보살님이 계시나니, 아 보는 눈마다 당신이 되게 하시는 보살이여. 금빛의 부신 몸이여, 버들잎 같은 손길로 미묘한 꽃과 향을 들고 부처님을 노래하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의 바다여.

복이 있도다, 그대 수행자들이여. 이 같은 수행으로 지금까지 지어 온 그대들의 모든 업장이 사라지고 그대들은 가없는 공덕을 얻게 되리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하늘 신과 악마도 기뻐하는 도다.

머뭇이 없는 수행자여, 다시 가자. 부처님의 노을빛 염통을 떠나 부처님의 목뒤에 일렁이는 빛의 바다로. 한 둥그런 빛바다를 지나 흘러내린 두 팔을 따라 가면 다시 눈부신 빛 바람이 그대를 기다리는구나. 눈이 부신 빛 바람도 머물 곳이 아니다. 가자, 따뜻한 부처님의 손으로. 부처님의 두손이여, 열 손가락은 길고 가늘어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그물 모양의 빛의 무늬가 묘하구나.

부처님의 손톱이여, 검붉은 노을 빛의 님의 손톱이시여.

떠남이 없이 떠나는 순례자여 다시 오던 길을 돌아 부처님의 염통으로 돌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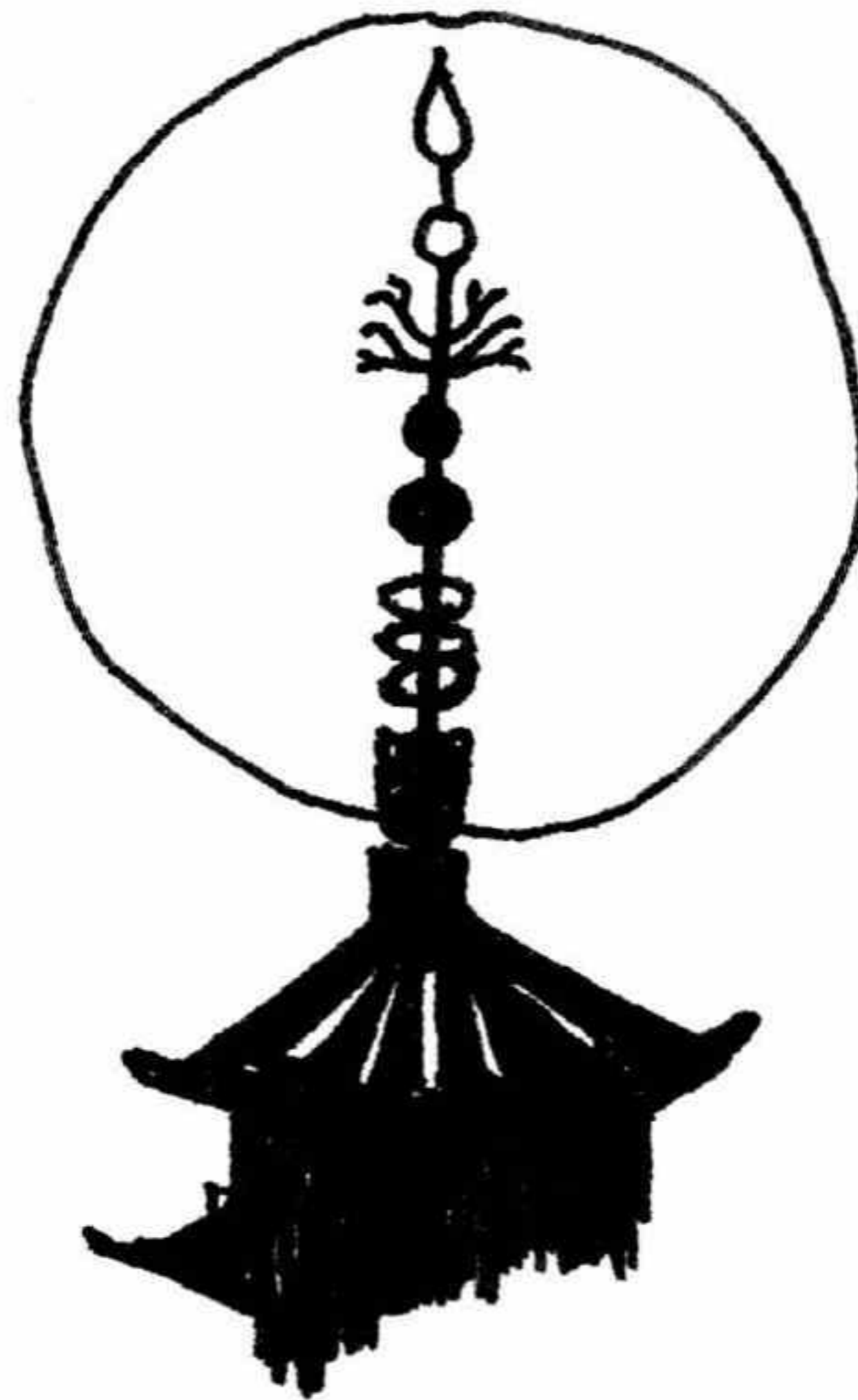
아, 님의 모습을 다시 보는 행복이여. 염통의 바깥으로 가면 부처님의 가슴이 있도다.

호수같이 넓고 고른 님의 가슴이여, 온갖 덕의 빛살이 끝없이 여울지고 있구나. 이 곳을 지나면 판판하고 튀어나오지 않은 부처님의 배가 나오고 배 한 가운데 있는 둥글고 깊은 배꼽에서는 눈부신 빛줄기가 안팎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감이 없이 가는 수행자여, 이제 그대는 머뭇거리기 없이 부처님의 깊은 속살을 향해 떠나라. 부처님의 속살은 밖으로 튀어나움이 없이 보름달과 같나니 그곳은 배나 등과 다름없이 밋밋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거나 여자거나 음욕이 많은 이는 부처님의 속살을 생각하라. 그러면 음욕이 사라지고 업장이 없어지고 가없는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하늘 신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살펴 줄 것이니, 편안히 오래 살고 앓거나 괴로운



행복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수행을 지어 가면 모든 업장과 무서운 죄는 사라지고 끝없는 공덕을 얻게 되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없이 기뻐하실 것이다.

부처님의 몸을 순례하는 그대 행복한 수행자여, 다시 보아라. 부처님의 눈을 보아라. 바다같이 맑고 큰 눈이여 희고 검음이 뚜렷한데, 눈부신 빛 바람은 끝이 없구나.

일이 없다.”

보아야 할 세계를 보는 순례자여, 그대의 길은 부처님의 허벅지를 따라 무릎으로 흐르나니 무릎 뼈는 희고 둥글고 튼튼하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사슴의 발과 같구나. 부처님의 발꿈치여, 코끼리임금의 코와 같고 부처님의 발등이여, 거북이의 등과 같구나. 부처님의 발가락이여, 사이사이마다 상서로운 그물 무늬요, 부처님의 발톱이여, 검붉은 노을 빛이로구나.

보아라, 수행자여. 가부좌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왼쪽 발은 오른쪽 허벅지 위로 배꼽 높이로 올리시고 오른쪽 발은 왼쪽 허벅지 위로 배꼽 높이로 올리셨구나. 두 발바닥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서로운 무늬의 빛살들이 퍼져서十方세계를 밝게 비추는 구나.

수행자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처님의 발바닥까지를 순례하는 것을 장엄한 공덕의 바다인 부처님의 몸을 본다(觀佛色身莊嚴功德)고 말하나니 이 같은 ‘순례를 흐름을 따라 봄(順觀)’ 이라고 한다.

눈을 비우고 씻어 주는 빛을 보는 수행자여, 이제 다시 부처님의 발을 떠나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연꽃자리로 길을 떠나자. 연꽃자리여, 꽃잎은 헤아릴 수 없이 다른 연꽃을 끌어안고 그 꽃잎은 잎잎마다 온갖 보배로 꾸며졌는데 보배들은 저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살을 터트려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몸을 비추는 구나.

아, 보아라, 저 보배연꽃을. 꽃대는 사방 팔면으로 온갖 보배로 꾸며졌고 끊임없는 빛살은 퍼지고 퍼져서 위아래를 함께 비추는구나. 꽃대가 잠겨 있는 곳은 보배연못이구나. 보배연못 속에는 다시 수많은 보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빛살을 뿌리는데, 빛살빛살마다 부처님의 몸을 비추고 빛살빛살마다十方세계의 육도 중생들을 두루 비추는구나. 행복한 수행자여, 이 빛은 다시 그대 수행자의 몸을 끝없이 감싸안고 비취 주는구나.

수행자여, 이 같은 수행으로 그대는 지금까지 지어온 온갖 업장을 없애고 한없는 공덕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나니, 이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또한 모든 하늘 신과 악마들도 기뻐하여 밤낮없이 그림자처럼 그대 몸을 보살펴 줄 것이니,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누움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며

온갖 병과 피로움이 다 사라질 것이니라.

수행자들이여, 이는 참으로 희유한 수행법이니, 그대는 부처님의 가르치심대로 다만 수행만을 할 뿐 그대가 수행을 하여 몸소 보고들은 저 극락정토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만약 스스로의 수행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이는 크나큰 잘못이라, 온갖 좋지 않은 과보를 받게 되리라. 수행자여, 이는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할 일이니 중생은 말만으로 정토와 수행을 삼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 수행한 그대 정토행자는 목숨을 마칠 때 반드시 가장 뛰어난 상품의 아미타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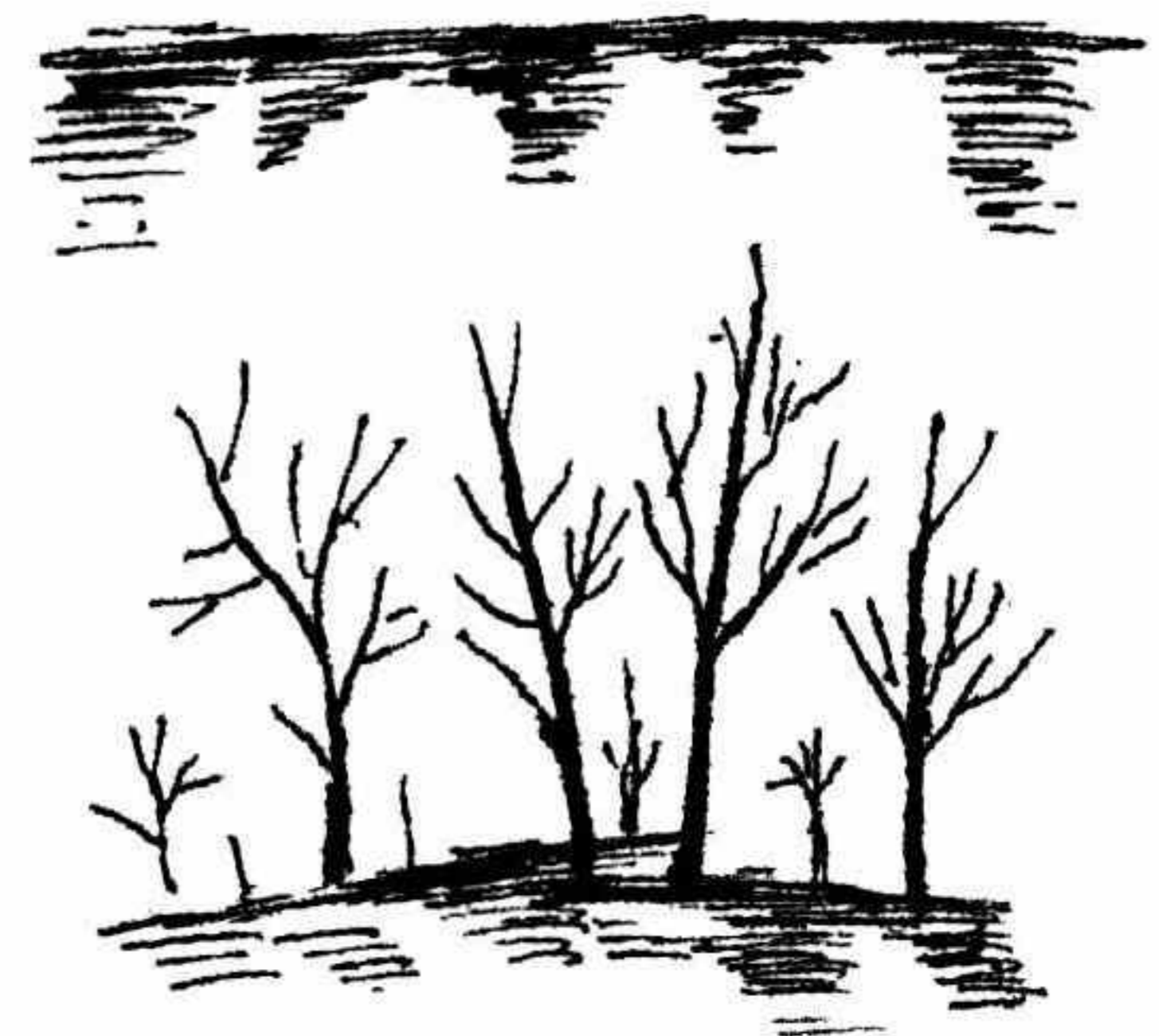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자리에 앉으면 수정같이 티없는 눈으로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자리를 열 여섯 번 되새겨 보아라. 그런 뒤 그대 마음을 눈썹사이에 있는 흰털 끝에 놓아두어라.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나니 흔들리면 삼매를 이룰 수 없느니라.

행복한 수행자들아, 밝게 알아야 할지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보면서 삼매에 이르는 위없는 수행법인 관불삼매관법(觀佛三昧觀法)이라는 것을.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한때도 놓침이 없이 저 극락정토를 그리워하라.

피어나는 그리움으로 저 극락정토를 한없이 그리워하자. 그리고 오로지 저 열세 가지 관법(觀法)을 닦을지니 그러면 바로 큰 편안함을 얻

으리라.

수정같이 맑은 수행자들아, 그대가 연꽃나라에 가서 나고자 한다면 먼저 계율을 맑게 지키라. 그리고 큰 바다 물결 소리같이 끊임없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아미타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하루 열 다섯 번을 읽으면 두 해면 일만 번이 되고 하루 서른 번을 읽으면 한 해면 일만 번이 아닌가. 하루 부처님을 일만 번을 부르고 때에 따라 기쁨에 겨워 예배하고 극락정토를 찬탄하는 수행이여. 그 무슨 일이 있어 이 일을 거를 것인가. 하루 아미타 부처님을 삼만 번, 육만 번, 십만 번을 부르는 이 기쁨이여, 이런 수행자는 벌써 극락정토의 상품상생의 주인이니, 나머지 공덕마저 정토에 나는 씨앗이 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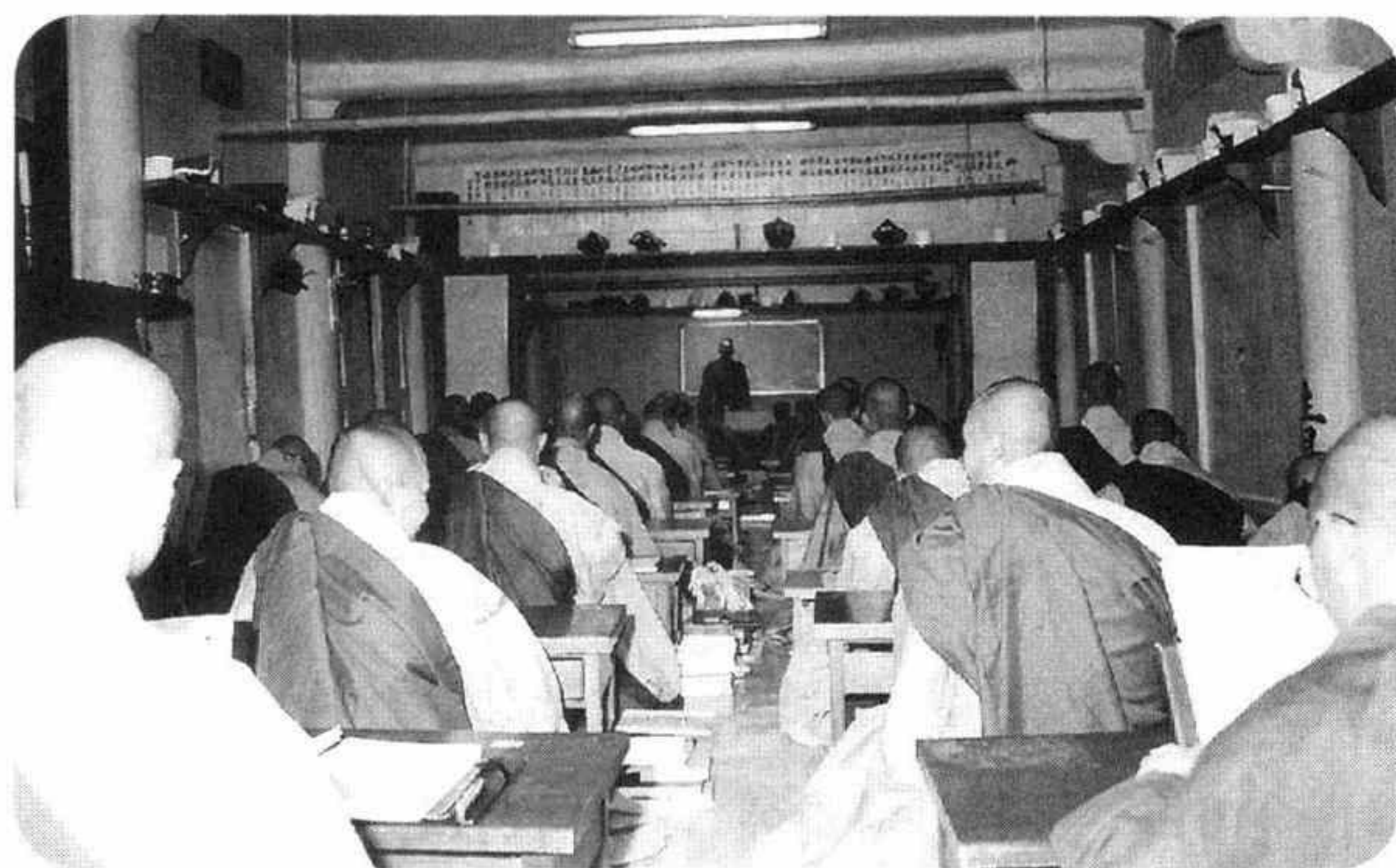


학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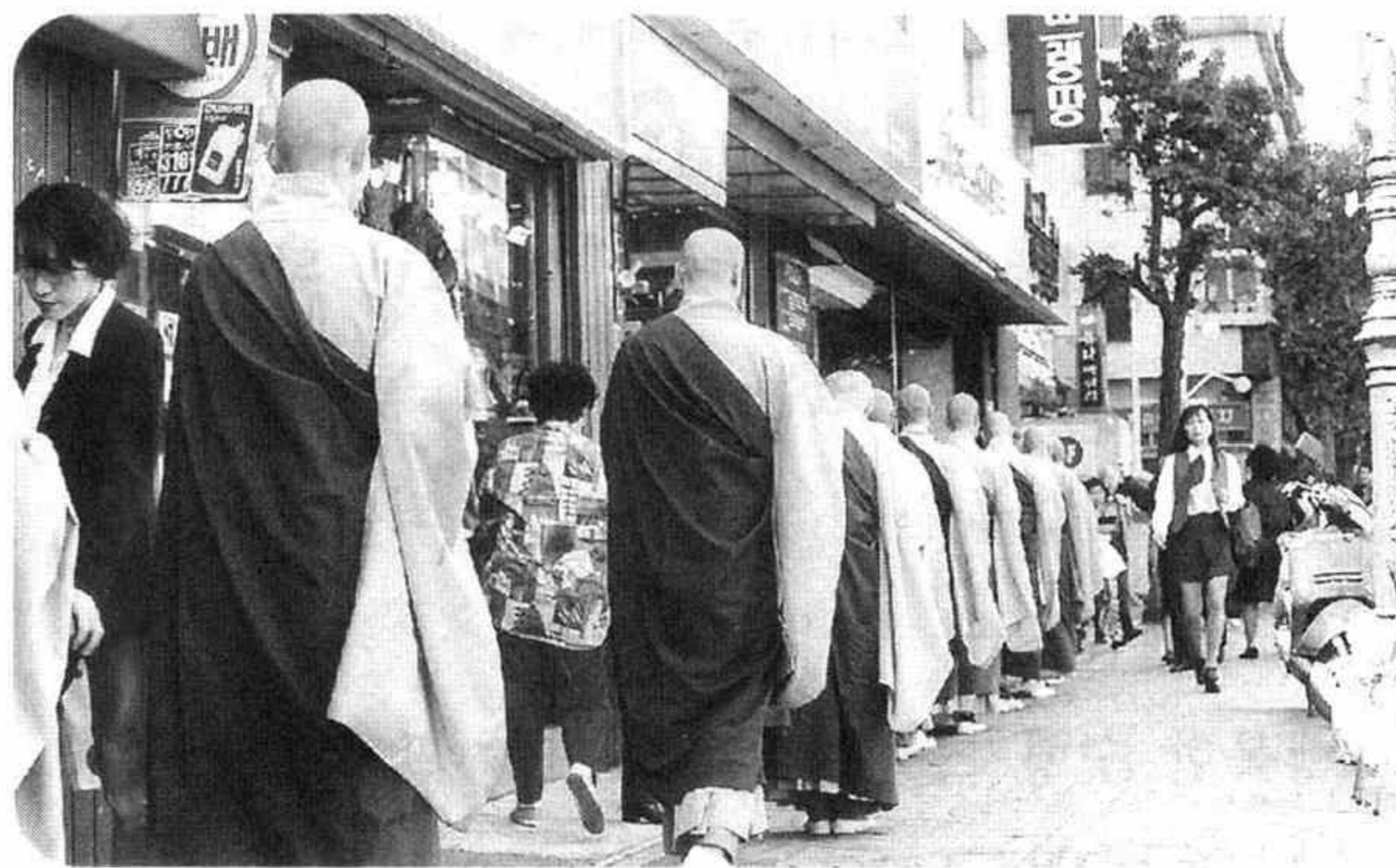
염불특강(11월 4일~8일)

해청당 큰방에서 5일간 원경스님을 모시고 염불특강을 가졌습니다. 하루 4시간씩 지도해 주셨는데, 예불에서 재의식과 시달림까지 염불전반에 걸쳐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탁발(11월 14일)

광주 근남로 일대에서 탁발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모금된 일백만원의 탁발금은 학2동사무소에서 추천해준 하반신 불수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딸과 함께 살아가는 한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입제종 승려 송광사 방문(11월 14일)

일본 입제종 승려 30여명이 송광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학인 스님들과의 대화를 요청하여 목우헌에서 동당스님의 통역으로 저녁예불후 1시간에 걸쳐 대담이 있었습니다.





전국본말사 주지결의 대회 참가(11월 22일)
환경 및 사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얻으려는 이를 보존하고자하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총무원에서 개최한 이 대회에 강원학인들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감따기울력(11월 24일)
강원 전 대종이 사중내 감 따는 울력을 했습니다. 이날 수확한 감은 천연 감식 초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데, 양이 모자라서 12월에 대원사에 한번 더 울력을 다녀왔습니다.



무장무애기도 및 동안거 개강
(11월 25일~27일)
사흘간 조석예불후 큰방에서 동안거 무장무애를 기원하는 참회기도를 시작으로 동안거 경재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방훈련(11월 28일)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소방훈련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막약에 있는 화재에 대한 대처방법을 실습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순천소방서에서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강원학인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김장울력(11월 28일~29일)

사중 전 대중이 모여 배추 뽑기를 시작으로 다듬기, 절이기, 소금물 빼기 순으로 겨울철 반양식이라는 김장울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대중이 늘어났고 맛큰 김장양도 많아졌습니다.



정혜사상량식(11월 29일)

현재 해청당 큰방이 비좁아 법성린 자리에 정혜사 신축공사가 한창인데, 이날 사중의 스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오는 삼월복사 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정혜사는 강원 의 보급자리를 이용될 예정이며 이 건물이 완공되면 더 많은 대중이 강원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낙엽울력(12월 14일)

사내 통행로에 흩어져 있던 낙엽을 긁어 모아 재래식 화장실로 옮기는 울력이 있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밭에 넣을 퇴비를 만들기 위해 모았습니다.



팔죽울력(12월 20일)

동지를 앞두고 저녁 예불후 사중 전대중이 큰방에 모여서 팔죽에 들어갈 새알 만들기 울력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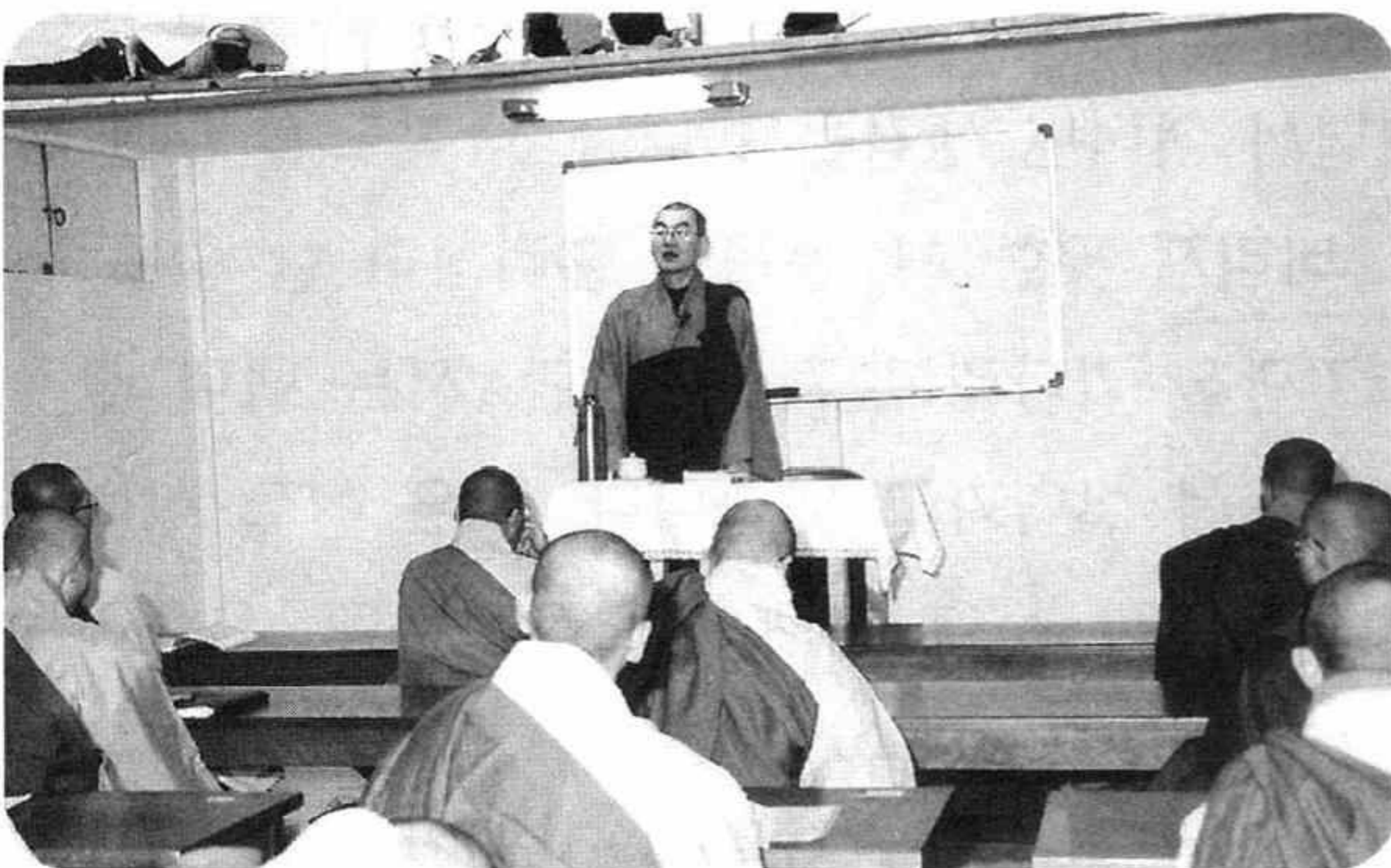
구산 큰스님 추모법회(12월 23일)

제13주기 추모법회가 5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대웅보전과 탕전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도 강원스님들이 소인을 맡아 수고했습니다.



장작울력(12월 26일)

한업전 뒤편에서 겨울살이 연륜인 장작을 패는 울력이 있었습니다. 서투른 도끼질에 생각보다 힘이 들었지만, 옛스님들에 비하면 풍족해진 우리 현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통스님 특강(1월 9일~12일)

법학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예불문 및 108대예참에 대하여 해인사 백견암 원통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수행이 바탕된 힘있는 강의로 학인들의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결재소풍(1월13일)

반결재를 맞아 조계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선암사를 거쳐 여수 석천사와 흥국사도 참배했습니다.

사친서 (辭親書)

- 어머니께 드리는 글 -

정원 / 치문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그 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옷소매를 뚫고 들어오는 한기를 느끼면서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출가한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시며 한숨을 짓고 애타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지만, 저는 이미 출가 사문이 되어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샅바느질로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눈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요즘에는 더욱 더 나빠져 글도 제대로 볼 수 없으시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당신은 오로지 자식하나 잘되기를 학수고대하시며,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남들 흔히 가는 관광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신 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고 믿었던 자식은 어미 품을 떠나 삭발염의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땅을 치며 목놓아 울기를 몇 날 며칠 하셨다며, 저에게 글을 보내셨지요. 그 글을 읽는 자식의 마음 또한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불효자로서 살아가려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머니, 당신은 자식이 임신출세하여 세상에 나가 권좌에 앉고, 명예를 구하고, 재물을 얻으며, 결혼하여 자식 낳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것이 하루아침의 이슬과 같고, 괴로움과 영화로운 삶이 저녁연기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애육에 얽매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더 시급한 것은 나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결혼하여 행복을 느끼셨다면, 왜 굳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수행자의 삶을 사셨겠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그 공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 매일 갖가지 재물과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한다해도 不孝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출가한 공덕에 비하면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대 조상들이 발원하고 발원해야 부처님의 제자가 한명 나온다고 했고, 또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九族)이 천상(天上)에 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응어리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今生에 제 몸을 제도하여 어머니를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부처님 법에 의지하여 살다가게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지난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을 위해 기원하신 공덕으로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부처님의 제자된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뽐뽐하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고 자식이 수행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빌어 주십시오. 어머니, 당신의 강인한 의지를 믿습니다. 역대 조사님 선사님 모친들 또한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모친의 지극한 정성으로 모두 해탈하여 다시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회상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부디 건강하십시오.

차수행에 관하여

- 자료제공 : 禪茶一味會
- 자료정리 : 편집부



“차를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적 사유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차를 마시는 이들에게 단지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어리석음과 욕심, 성냄으로 차있던 자신의 삶을 지혜와 보시, 자비의 삶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들은 아주 훌륭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송광사 불교강원내의 모임인 선다일미회(禪茶一味會)의 첫 번째 모임에서 강주스님이 하셨던 첫 말씀이다.

지난 하안거 기간에 차를 마시며 차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결성된 선다일미회는 정기적으로 강주스님께 차수행법을 지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호부터 강의 내용을 해청당에 정리 수록함으로써 많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차를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것(차수행법)은 특수하게 여겨지는 수행의 범위를 일상생

활에까지 넓히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마시는 것을 수행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마타와 위빠싸나입니다.

사마타는 관찰의 대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위빠싸나는 변화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승 기신론에서는 사마타는 일체 모든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본질이 無常함을 正念하는 것이고 위빠싸나는 생각의 변화를 잘 분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마타관을 지관(止觀)이라고 하고 위빠싸나관을 관관(觀觀)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총을 쏠 때 사마타는 그 표적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것이고 위빠싸나관은 표적이 움직이는 것을 정확히 관찰하여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차수행법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단지 차를 마시는 것에 응용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차수행법에 관한 것을 여러분에게 털어놓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스님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데 있어 세 가지 주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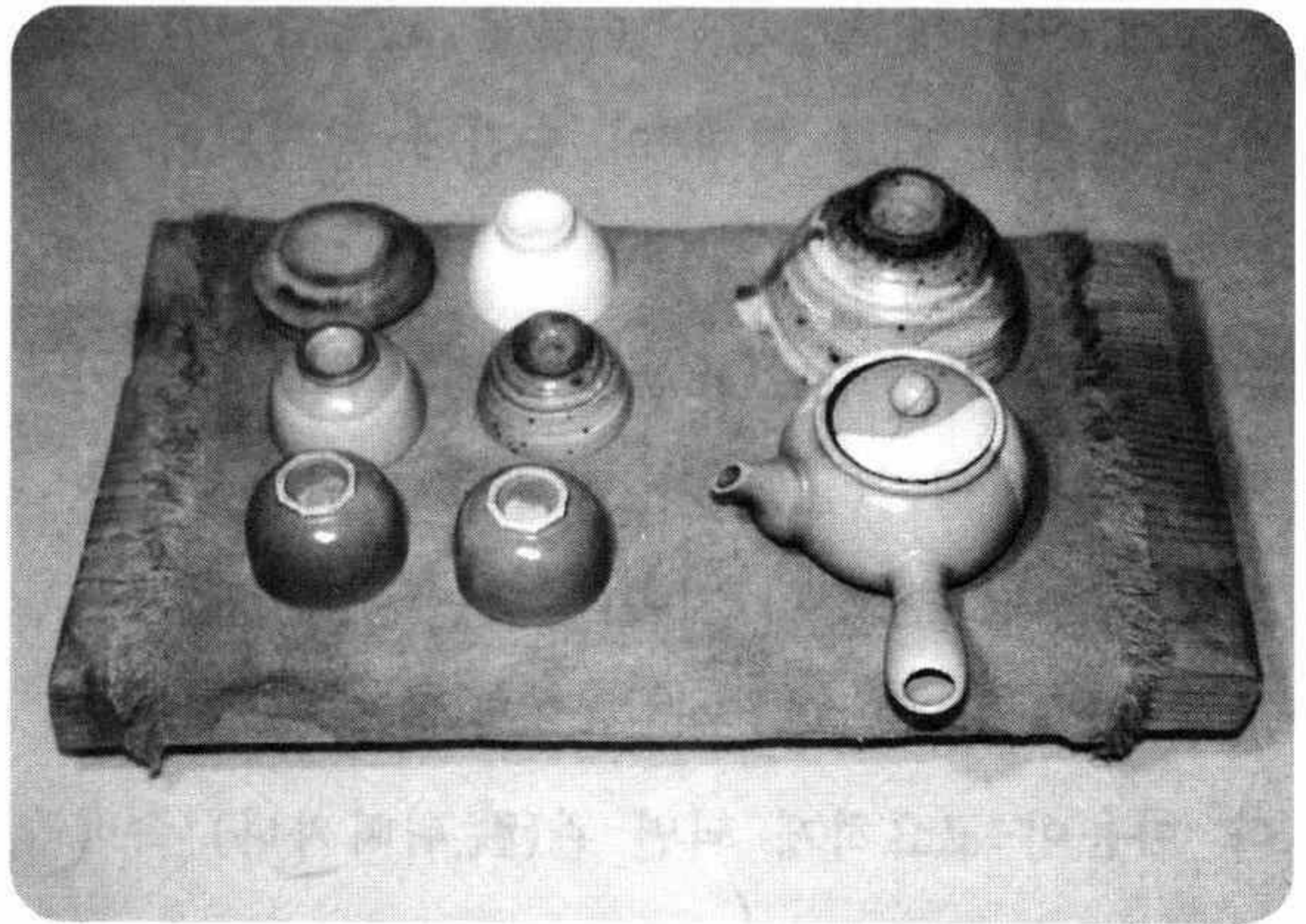
첫번째 초점은 처음 차를 마실 때 느끼는 첫 맛입니다.

첫맛을 알아낸다는 것은 정확하게 맛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로 일어나는 맛을 포착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는 疑情을 통하여 최초로 일어나는 생각을 소멸함으로써 생각이전(以前)을 간(看)하는 화두참구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간화선(看話禪)은 생각을 추적하여 생각이전의 불생멸(不生滅)을 깨달아 가는 것을 말하는데 최초의 맛을 찾아가는 것도 또한 본래 맛이전(以前)의 근본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두번째 초점은 차맛의 변화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분별해야하는 범위는 상당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분별해 낼 수 없는 미세한 향, 미세한 맛까지도 분별해내야 합니다. 혀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맛이 느껴지며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갈 때의 온도 변화까지도 감지해 내야합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배속에서 올라오는 차의 향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되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차맛은 결코 하나가 아니고 갖가지 맛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첫번째 초점은 삼매를 얻는 방법으로 사마타관(奢摩他觀)에 해당되지만 두 번째 초점은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위빠사나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빠사나로 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맛을 따라가면서 첫번째 초점인 최초로 느끼는 맛을 포착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늘 함께 하므로 서로 상보적(相補的)인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차의 맛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을 얼마나 잘 분별해내는냐가 수행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차맛이 변화하는 추이를 잘 관찰하면 맛보는 마음과 차의 맛(객관대상)이 서로 대치하여 어긋나지 않게 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흐르지 않게 되고 현재 이 순간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정념(正念)이라 하지요. 정념이 되면 바로 정지(正知)가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정념(正念)이 지속이 되면 정정(正定)이 오게 됩니다. 즉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관(觀, 위빠싸나) 속에 지(止, 사마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지관쌍수(止觀雙修)라 말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질문과 대답

☯ 문 : 적은 양을 입에 넣어 침을 섞어서 혀로 돌려가면서 맛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답 : 그러한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로 느끼는 맛을 포착하는 행위에 있어서 설령 맛이 변화하더라도 계속 변화 속의 최초로 느끼는 그 맛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 문 : 지대방에서 마시는 차맛과 스님과 마시는 차맛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답 :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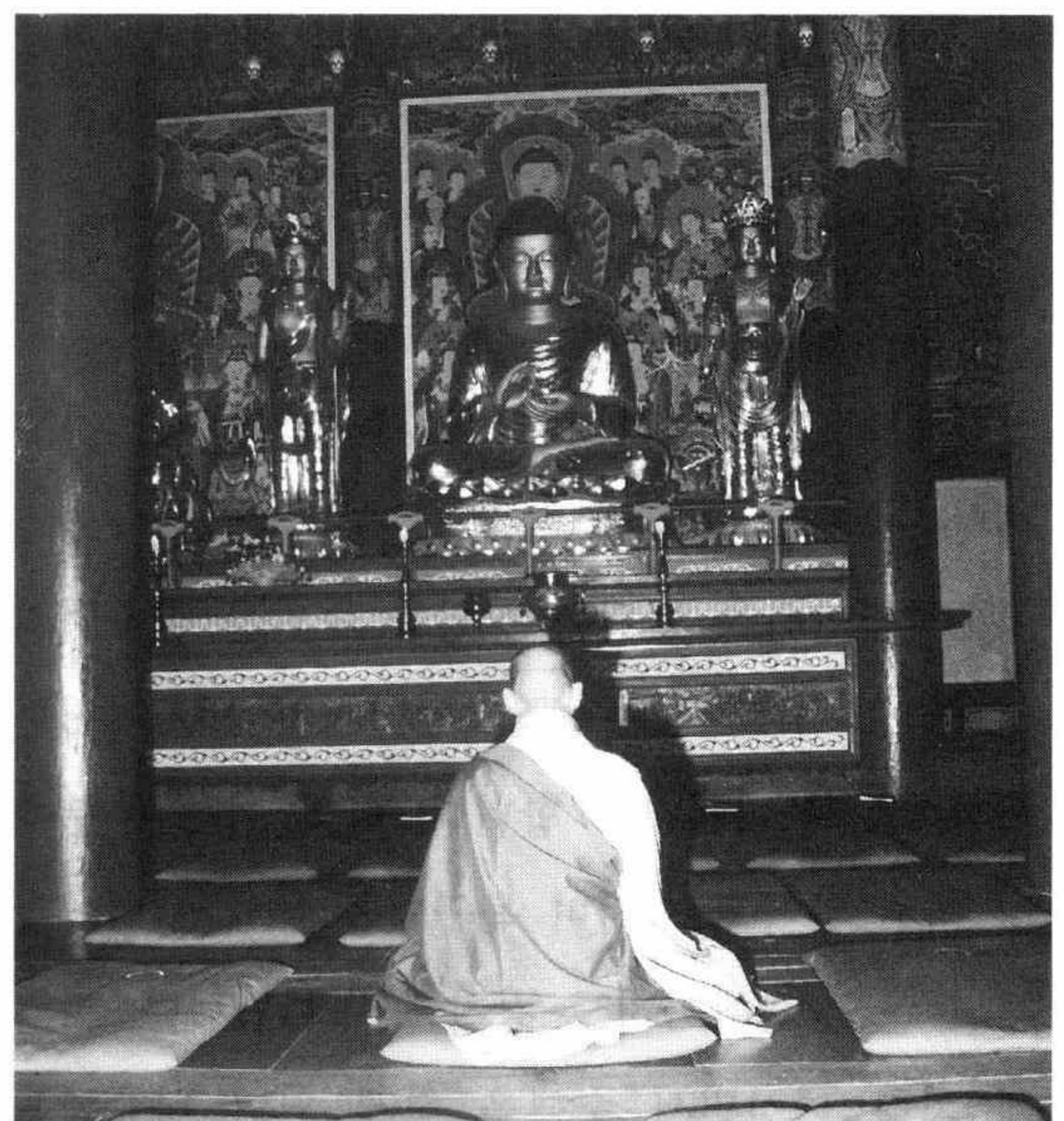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은 생명의 인연조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맛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맛이 이렇게 다른데 눈으

로 보는 것, 즉 눈과 대상이 만났을 때 알아지는 앎의 상태가 순간순간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기입니다. 연기의 다른 이름이 앎이며 앎의 다른 이름이 연기인 것입니다. 또 똑같은 차라도 각자 마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는 마시는 사람의 몸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 차를 마시는 장소의 분위기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아는 자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행입니다.

제가 차수행법을 여러 스님에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서구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네 삶과 멋을 차와 수행이라는 것을 결합시킨 차수행법으로 되찾으려는데 있습니다.

배우고 안만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大乘起信論증에서

도제/사교 譯

론(論)

復次覺體相者，有四種大義，與虛空等，猶如淨鏡，云何爲四，一者如實空鏡，遠離一切心境界相，無法可現，非覺照義故，二者因熏習鏡，謂如實不空，一切世間境界，悉於中現，不出不入，不失不壞，常住一心，以一切法即眞實性故，又一切染法所不能染，智體不動，具足無漏，熏衆生故，三者法出離鏡，謂不空法，出煩惱礙 智礙離和合相，淳淨明故，四者緣熏習鏡，謂依法出離故，遍照衆生之心，令修善根，隨念示現故，

소(疎)

次明性淨本，覺之相，於中有二，一者總標，二者別解，初中言與虛空等者，無所不遍故，猶如淨鏡者，離垢現影故，四種義中，第一第三，依離垢義以況淨鏡，第二第四，依現像義亦有淨義也，別解之中 別顯四種，此中前二在於因性，其後二種在於果地，前二種者，明空與智，如涅槃經言，佛性者第一義空，第一義空名爲智慧，智者見空及與不空，愚者不見空與不空，乃至廣說，今此初中言遠離一切心境界相者，即顯彼經第一義空也，無法可現非覺照義者，是釋不見空與不空也，第二中言一切世間境界悉於中現者，是釋彼經智慧者見空 及與不空，如彼經言，空者一切生死，不空者謂大涅槃故，此中但現生死境界，既現於鏡，故言不出而不染鏡，故曰不入，隨所現像，同本覺量，等虛空界，遍三世際，故無念念之失，亦無滅盡之壞，故言不失不壞常住一心等也，上來明其淨鏡之義，又一切下，釋因熏習義也，第三中言出於二 淳淨明者，是明前說因熏習鏡出纏之時爲法身也，第四中言依法出離故遍照衆生心者，即彼本覺顯現之時，等照物機，示現萬化，以之故言隨念示現

此與前說不思議業有何異者，彼明應身始覺之業，此顯本覺法身之用，隨起一化，有此二義，總說雖然，於中分別者，若論始覺所起之門，隨緣相屬而得利益，由其根本隨染本覺，從來相關有親疏故，論其本覺所顯之門，普益機熟不簡相屬，由其本來性淨本覺，等通一切無親疏故，廣覺義竟

[론(論)]

다음에 깨달음의 본질과 현상¹⁾에는 4종류의 큰뜻이 있는데 허공과 같으며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무엇이 4종류가 되는가?

첫째는 여실공경(如實空鏡)²⁾이니 일체 마음이 대상의 모습까지 멀리하여서 나타낼만한 법이 없으니 각조³⁾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훈습경(因勳習鏡)⁴⁾이니 여실불공(如實不空)⁵⁾을 말한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거울속에서 나타나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으며⁶⁾ 소실되지 않고 파괴되지도 않으며 항상 일심에 머무른다.

이는 일체 법이 곧 진실한 성품이기 때문이다.

또 일체의 염법(染法)⁷⁾이 더럽게 할 수 없으니 지혜의 본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여 무루(無漏)⁸⁾를 구축하여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출이경(法出離鏡)이니 공이 아닌 진여법이 번뇌애(煩惱礙)⁹⁾와 지애(智礙)¹⁰⁾를

1) 성정분각의 체가 지니는 상

① 覺은 지혜의 다른 이름으로 파괴나 소멸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최초의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각(覺)하면 소멸되고 만다.

2) 如實은 眞如를 뜻하고 그 자체가 思, 慮, 分을 超越하여 空空寂寂한것(眞如是 일체의 망을 여의어서 空寂하므로 깨끗한 거울처럼 한점 티끌도 없이 如實함을 뜻함)

3) 觀照, 자신의 內面을 비쳐보는 것을 말함.

4) 인훈습경은 자기내부의 번뇌를 타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번뇌가 사라진다고 했다.

① 因은 一切業有를 나타내는 原因이며 發心과 修行 또는 과보의 原因이며,

② 熏習은 끼치는 영향.

5) 眞如是 참된 實存에서 無漏淸淨한 성품을 구비했음을 말한 것.

6) 불출(不出) : 일체 현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오염(汚染)시키는 것이 아니다.

불입(不入) : 들어온 것이 아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이 나타내보이는 성질이 있음과 동시에 마음거울에 나타나는 일체현상이 여실히 공(空)하다는 성(性)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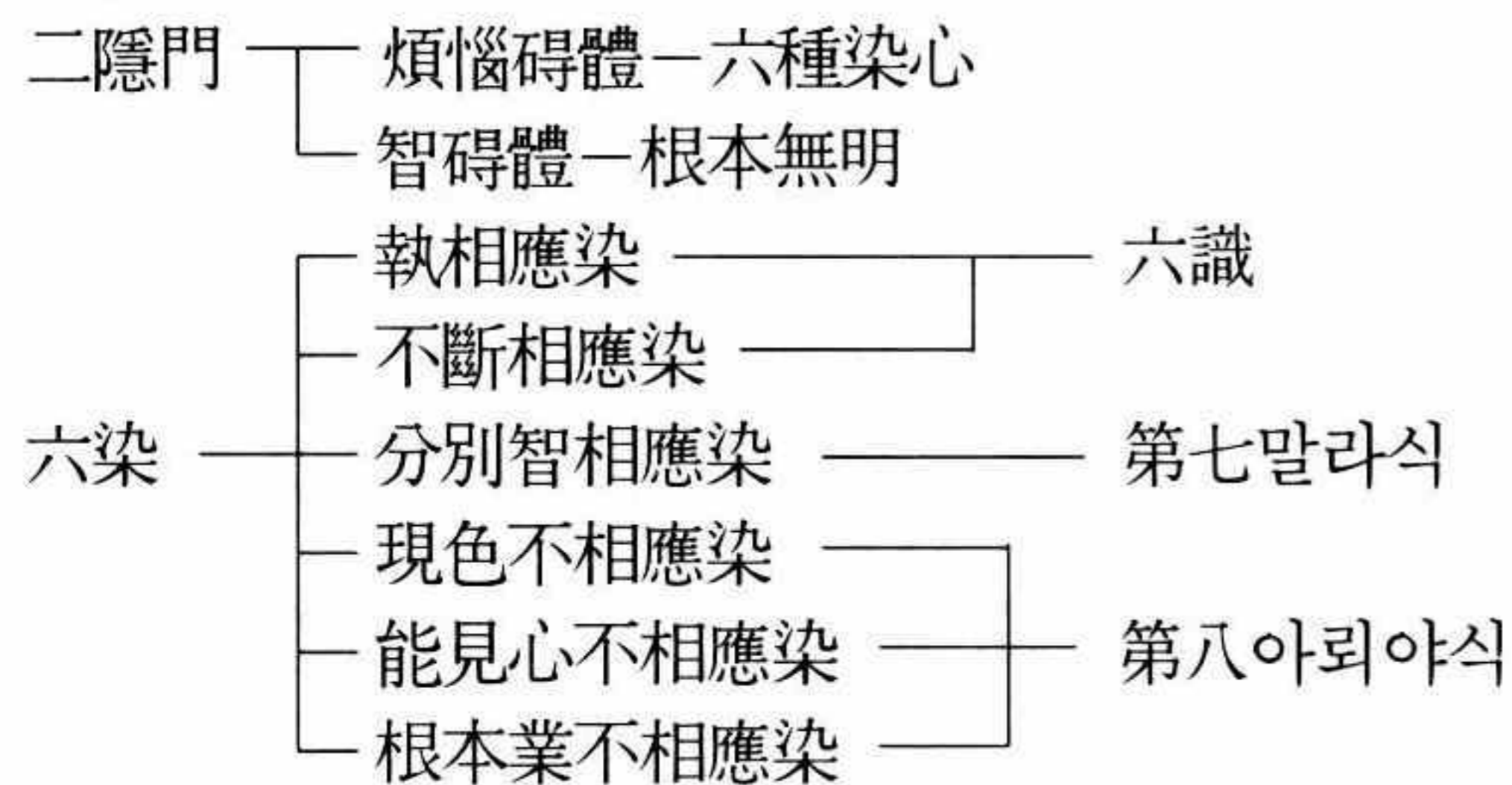
7) 染汚法の 준말

① 악성과 有覆無記와 諸法을 말함.

② 迷妄의 諸法을 말함. 이것이 淨法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8) 漏는 객관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6근에서 허물을 漏出한다는 뜻으로 번뇌의 다른 이름.

9) 煩惱碍의 體는 六染心이고 六種染心을 八識으로 配對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二障義, 第二出體門,



원효는 이와 같이 起信論의 六染心을 번뇌의 體라하고 이 번뇌애의 六染에 현료문의 二障을 攝한다고 말하고 있다.

벗어나며 화합된 모습을 떠나서 맑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이다.

네번째는 연熏습경(緣熏習鏡)¹¹⁾이니 법에서 벗어남을 의지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선근을 닦도록 하여 중생의 생각에 따라 나타나 보이게 하는 까닭이다.

[소(疏)]

다음에는 성정본각(性淨本覺)¹²⁾의 모습을 밝힌다.

그 중에 둘이 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드러내었고, 둘째는 따로 풀이하였다.

처음에 허공과 같다고한 것은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니, 이는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는 것은 때가 없어지면 모습이 나타남과 같기 때문이다.

4종류의 뜻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때가 없다는 뜻에 의하여 깨끗한 거울을 비유한 것이요.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영상이 나타나는 뜻에 의하여도 또한 깨끗한 뜻이 있는 것이다.

따로 설명한 가운데에는 4종류를 각각 나타냈으니 이 가운데에 앞의 둘은 인성(因性)¹³⁾에 있고 그 뒤의 두 가지는 과지(果地)¹⁴⁾에 있다.

앞의 두 가지는的空과 智를 밝혔으니¹⁵⁾ 이는 열반경에서 말하되 “佛性이라는 것은 제일의공(第一義空)¹⁶⁾이요, 제일의공(第一義空)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있는자는 공(空)¹⁷⁾과 불공(不空)¹⁸⁾을 보지만 어리석은자¹⁹⁾는 공과 불공을 보지 못한다.”라고 널리 설한 것과 같다.

10) 智碍의 는 根本無明이다. 起信論에서 [心에 依하여 意와 意識으로 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無明의 熏習에 의해서 隨緣起動하여 阿梨耶識이 된다. 본래 自性淸淨인 여래장으로써 화합시켜서 阿梨耶識의 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根本無明이다. 그 의미에서는 果로서의 阿梨耶識이 六染心이고 六染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根本無明이다. 六染心은 眞如根本智를 障礙하고 根本無明이 世間自然 業智를 障礙한다고 하는 構造이다.

11) 가지각색인 중생의 根機에 맞추어 여러 가지의 報佛과 化佛의 몸을 나타내어 法을 設하여 중생이 善根功德을 修習하여 證得케하는 外緣으로써의 眞如를 말한다(중생들의 번뇌가 자기마음에 나타나는 것).

12) 本覺의 體德

13) 佛果를 얻게하는 원인인 本성(因의 출발점에 있을 때 번뇌를 치고 올라옴)

14) 因位의 수행에 의하여 깨닫는 결과를 얻은 地位(果地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15) 如實空鏡의 空과 因熏習鏡의 智를 밝힘. 여기서 空은 愚者, 智는 智慧者를 말함.

16) 18空의 하나 眞如空. 眞境空 이라고도 한다.

대승의 열반. 대승에서는 제법의 제1원리인 열반은 소승에서 말하는 偏眞但空이 아니고 공한 것 까지도 中道實相의 공이므로 제일의 공이라 한다.

17) 번뇌가 空함은 말한다. 二乘의 境界. 一切生死은 因緣을 따라서 생겨난 것이므로 거기에 我, 本, 實 라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空이라 한다.

18) 번뇌는 공하나 부처의 덕은 空하지 않다. 부처의 境界, 대열반의 境界.

19) 正藏 제12권(대열반경) 比 本卷 27.523.6.12-14행.

宋本 p.767 b.18-20행에는 [愚者]가 [所言空者]로 되어 있음. 이 내용을 원효스님께서서는 경전에 空者를 愚者로 잘못알았기 때문에 번역자 은정희씨는 空者로 고쳐서 해석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空者로 하는 것보

이제 여기서 처음²⁰⁾에 모든 마음의 대상을 멀리 하였다고한 것은

바로 저 열반경의 제일의공(第一義空)을 체득함을 나타낸 것이고, '나타낼만한 법이 없으므로, 覺照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공과 불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두 번째²¹⁾중에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 것은 저 열반경에서 '지혜 있는 자는 공과 불공을 본다'고 한 것을 해석한 것으로 이는 열반경에서 '공(空)을 본자는 일체생사에 있고 불공을 본자는 대열반에 도달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같으며, 이 중에서는 단지 생사의 경계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거울에 일체현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거울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니²²⁾ 장소에 따라 형상을 나타내는 마음

거울의 힘은 本覺의 量과 같아서 허공계와 같고 三世際의 모든 때에 두루하기 때문에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으며 또한 다 소멸시켜 파괴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잃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서 항상 一心에 머무른다'고 말하였다.

윗글에 그 깨끗한 거울의 뜻을 밝힘이요.

또 일체 아랫글에는 인훈습(因熏習)의 뜻을 풀이하였다.

세 번째 중에 '두 가지 장애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맑고 밝게 되었다'는 것은 앞글에서 말한 인훈습경(因熏習鏡)이 번뇌애(煩惱礙)와 지애(智礙)에서 벗어났을 때에²³⁾법신²⁴⁾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네 번째 중에서 '법출리에 의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춘다'고 말한 것은, 곧 저 본각²⁵⁾이 밝게 나타날 때에 중생의 근기를 똑같이 비추어 온갖 교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²⁶⁾ 그런 까닭에 '중생의 생각에 따라 나타낸다'고

다 愚者로 바꾸어서 보는 것이 내용상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원효스님께서 空者를 愚者로 바꾸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涅槃經에 空뿐만아니라 不空까지 보는자가 지혜로운자라고 했으므로 空과 不空을 보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어리석은 자(愚者)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20) 如實空鏡

21) 因熏習鏡

22) 마음은 거울과 같이 나타내 보이는 성질이 있음과 동시에 마음거울에 나타나는 일체현상이 여실히 空하다는 性을 보인다.

23) 始覺이 本覺과 一念相應했을 때 二碍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24) 法身 { 出纏法身[解脫法身]-번뇌망상속에있다가 벗어난 法身
在纏法身[拘俗法身]-衆生이 妄想속에 얽혀 있는 法身
또는 佛陀가 설한 正法 혹은 十力들의 功德法을 말함.

25) 無始이래의 迷(煩惱)를 수행에 의해 차례로 쳐부셔 서서히 心源을 깨닫는 것을 始覺이라하고 번뇌로 더럽혀진 迷의 모습이지만 心의 本性은 본래가 淸淨한 覺體인 것을 本覺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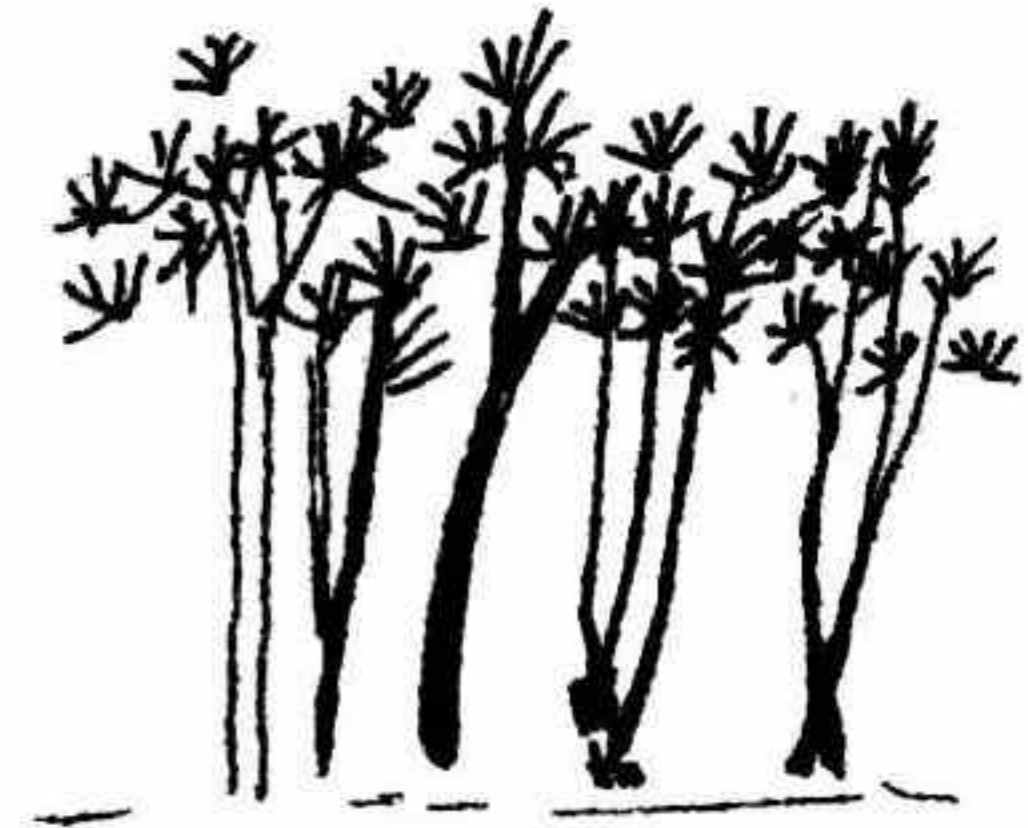
26) 부처님이 衆生教化하는데 千百億化身을 나투심.

말한 것이다. 이것은 앞글에서 말한 불사의업(不思議業)²⁷⁾과 무엇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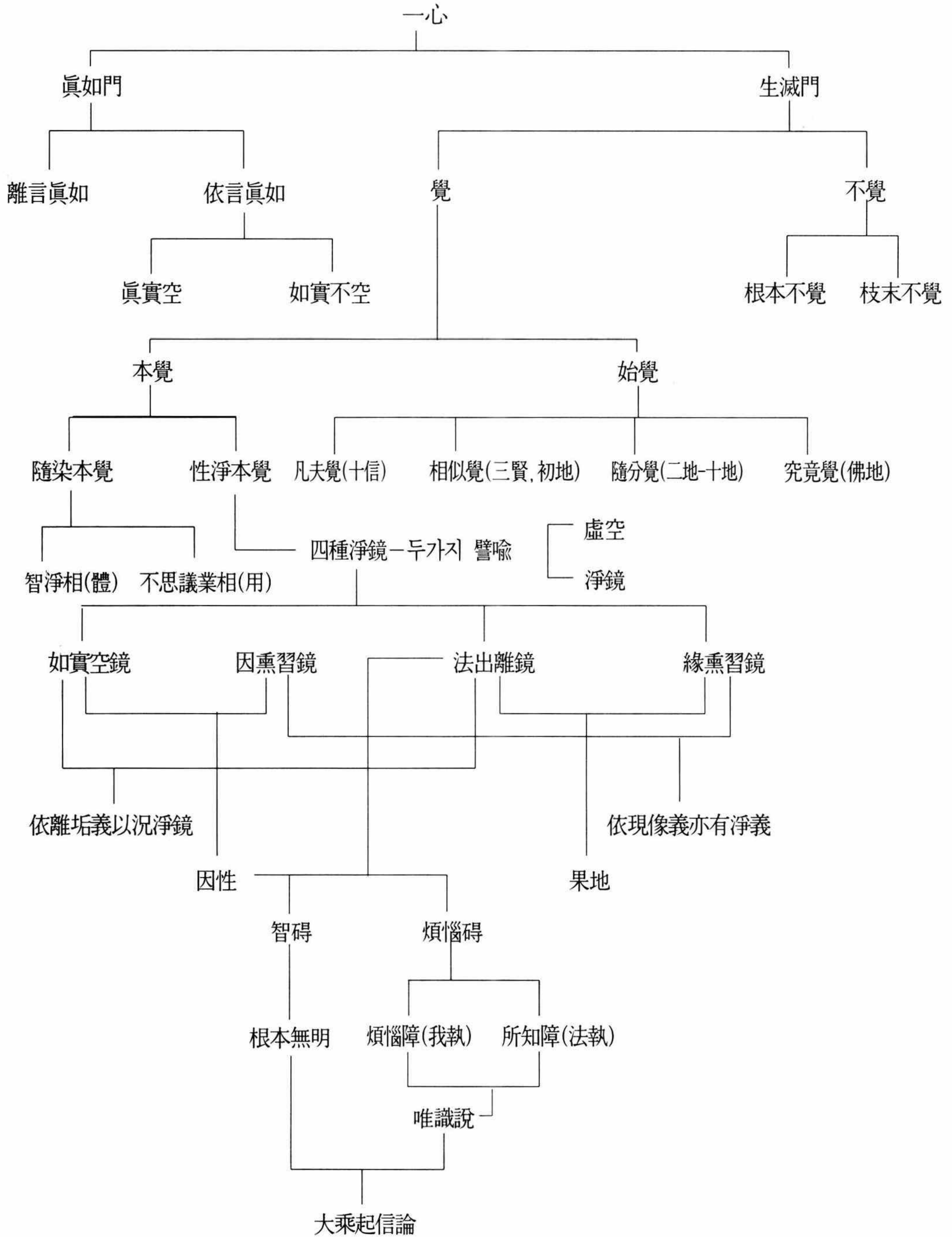
저기서는 應身²⁸⁾ 始覺²⁹⁾의 業用을 밝힌 것이고 여기서는 본각 법신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니 하나의 교화를 일으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뜻이 있게 되는 것이다.

비록 총괄하여 말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별해 본다면 만일 시각이 일으킨 쪽으로 논한다면 반연³⁰⁾함에 따라 상속하여서 이익을 얻음이니 그 근본인 수염본각(隨染本覺)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로 관련되어 친소가 있기 때문이고³¹⁾ 그 본각이 나타낸 쪽으로 논하면 근기가 성숙된 정도에 따라 널리 이익되게하여³²⁾ 서로 이어짐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 그 본래 성정본각은 일체에 고루 통하는 까닭으로 친소가 없기 때문이다.

널리 본각의 뜻을 설명한 것을 마친다.



-
- 27) 始覺을 완전히 얻어 妄染을 다 없애고 本覺의 性德이 나타나서 利他的 功能을 보이는 것을 말함(보살의 경지).
- 28) 應現한 身體란 뜻 중생의 機感에 따라 나타낸 佛身.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본래시간,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無限의 佛境界로부터 거짐으로 際限의 時空的형상을 나타낸 佛身
- 29) 始覺이란 일체 有情과 無情에 통하여 그 자성 본체로서 갖추어 있는 如來藏 眞如에 대하여 다시 그 本覺의 熏習력에 의하여 작용하는 覺을 始覺이라 한다.
- 30) 심(心)이 대상에 의지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
번뇌망상(煩惱妄想)의 시원(始元)이며 근본이라고 한다.
- 31) 隨染本覺이 衆生界에 있으므로 本覺과 멀리 떨어졌으므로 疏하고 나중에 깨달은 때에는 本覺에 돌아가 相應하므로 親이란 뜻.
- 32) 그 本覺이 나툰바 門을 論할진댄 널리 機가 익은(有緣衆生) 衆生을 이익케해서 간단치 않고 상속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本來性淨本覺이 一切衆生을 等通하여(無緣大悲) 親疎가 없는 연고이다.



永明智覺壽禪師垂誠

홍근 譯/치문

學道之門，別無奇特，只要洗滌根塵下，無量劫來業識種子，汝等但能消除情念，斷絕妄緣，對世間一切愛欲境界，心如木石相似，直饒未明道眼，自然成就淨身

若逢真正導師，切須勤心親近，假使參而未徹，學而未成，歷在耳根，永爲道種，世世不落惡趣，生生不失人耳，裳出頭來，一聞千悟

須信道，眞善知識，爲人中最大因緣，能化衆生，得見佛性，深嗟末世，誑說一禪，只學虛頭，全無

도를 배우는 방법은 유달리 특이한 것이 없다. 다만 한량없는 세월동안 육근 육진하에 업식종자를 씻는 것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능히 집착하는 마음(情念)을 제거하고 허망한 인연을 단절해서 세간의 모든 애욕경계를 상대하되 마음이 목석(木石)같은 굳이 도안(道眼)을 밝히지 못할지라도 자연히 청정한 몸을 이룰 것이다.

만약 진정한 도사(導師)를 만나거든 간절히 성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할지니 가령 참구하여 깨닫지 못하고 배워 이루지 못할지라도 귀에 들리기만 하면 영원히 도의 씨앗이 되어 세세생생에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몸을 잃지 아니하며 갓 태어나자 마자 하나를 들으면 천가지를 깨달을 것이다.

마땅히 이말을 믿어라. 참 선지식은 사람중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며 능히 중생을 교화하여 불성을 보게할 것이다. 매우 슬프도다. 말세에 미친 말하는 선객이 단지 쓸데없는 것만 배우고 전혀 참다운 이해가 없으며 걸음걸음에 인위적인 조작을(有) 행

實解，步步行有，口口談空，自不責業力所牽，更教人，撥無因果，便說飲酒食肉，不礙菩提，行盜行姪，無妨般若，生遭王法，死陷阿鼻，受得地獄業消，又入畜生餓鬼，百千萬劫，無有出期，除非一念回光，立即蒜邪爲正，若不自懺自悔，自度自修，諸佛出來，也無救你處

若割心肝，如木石相似，便可食肉，若喫酒，如喫屎尿相似，便可飲酒，若見端正男女，如死尸相似，便可行狀，若見己財他財，如糞土相似，便可侵盜，饒鍊得到此田地，亦未可順汝意在，直待證無量聖身，始可行世間逆順事

하되 입으로는 공을 말하고 스스로 업력에 끌린바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과가 없다하여, 술마시고 고기먹는 것이 보리에 장애되지 않고 도둑질을 행하고 음행하는 것이 반야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살아서는 나라법에 처벌을 받고 죽어서는 아비지옥에 들어가며 지옥의 업이 다하면 축생과 아귀로 태어나 백천만겁에 나올 기약이 없나니 오직 한생각을 돌이키면 당장에 샷됨을 바꾸어 바른것이 되거니와 네가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닦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실지라도 너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심장과 간을 베어도 목석과 같아야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만약 술을 마시되 똥과 오줌을 마시는 것 같아야 술을 마실것ियो, 만약 단정한 남녀를 보되 시체와 같아야 음행을 행할 것이며, 만약 자기 재물과 남의 재물을 보되 더러운 흙같아야 도둑질을 할 것이다. 설사 단련하여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을지라도 또한 너의 뜻을 따르지 말지니 바로 한량없는 성스런 몸(無量聖身)을 증득한 뒤에 비로서 세간의 모든 일(逆順事)을 행할 것이니라.

古聖施設，豈有他心，只爲末法僧尼，少持禁戒，恐他向善俗子，多退道心，所以廣行遮護，千經所說，萬論所陳，若不去狀，斷一切清淨種，若不去酒，斷一切智慧種，若不去盜，斷一切福德種，若不去肉，斷一切慈悲種，三世諸佛，同口敷宣，天下禪宗，一音演暢，如何後學，略不聽從，自毀正因，反行魔說

只爲宿熏業種，生遇邪師，善力易消，惡根難拔，豈不見古聖道見一魔事，如萬箭心，聞一魔聲，如千錐筍耳，速須遠離，不可見聞，各自究心，慎莫容易

옛성인이 베푸신 말씀이 어찌 다른 뜻이 있으리요. 단지 말법의 승려가 되어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선을 향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道心)도심을 물너나게 함이 많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널리 사된 것은 막고 바른 것은 보호하는 것을 행하신 것이니 천경에 말씀하신 바와 만론에 진술함에 만약 음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일체청정종자가 끊어지고 만약 술을 마시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일체의 지혜의 종자를 끊어지고 만약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일체복덕종자가 끊어지고 만약 고기 먹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일체의 자비종자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천하선종이 한소리로 펼치셨거늘 어떻게 후학들은 조금도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바른 인연을 헐고 도리어 마군의 말을 행하는가?

오랫동안 익혀온 업의 종자로 태어나 사된 스승을 만나 선력(善力)을 쉽게 녹이고 악근(惡根)을 뽑기 어렵다. 어찌 보지 못하는가 옛성인이 말씀하시길 하나의 마(魔)의 일을 보면 만개의 화살이 심장을 찌르는 듯하고 하나의 마의 소리를 들으면 천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 같이 하라하시니 속히 멀리하여 보고듣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궁구하여 쉽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에 온들 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간들 떠나는 길 알지 못하거늘
그 어디서 오고가는 중생들을
'내 아들'이라 하여 슬퍼 눈물 흘리는가!〈127〉
설사 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떠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과정이니라.〈128〉
찾지 않았는데 그는 왔고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는 여기서 떠난다.
그는 어디에선가 이곳으로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떠나지 않는가?〈129〉
여기서는 다른 중생이 되어가고
저기서는 또 다른 중생이 되어오니
오고가는 사람마다 그 모양 바꾸어 오고가니
가는 듯이 온다면 그 무엇을 슬퍼하라!〈130〉
아! 내 가슴 속에 숨겨진 화살은 사라지고
깃들었던 슬픔의 화살을 뽑아내니
아들의 죽음 때문에 괴로웠던 모든 슬픔이
명든 내 가슴에서 멀리 사라지네.〈131〉
모든 슬픔과 고통을 멀리 벗어나
내 가슴을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나니
거룩하신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께 귀의하여
마음의 평온을 얻었기 때문일세.〈132〉

Patacara's Five Hundred.
〈Psalms of the sisters:p-77〉

어려운 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천인이 문안드리고 여쭙었다.

“부처님은 하늘에서나 인간에서나 스승이시니
온 누리에서 가장 거룩하시도다.

모든 법을 밝게 아시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시네.
갖가지 어려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남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참아내기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에게 베풀기 어려우며
곤경에 빠져서 계율을 지키기 어려우며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 어려우니라.”

별역잡아함경 제14:292경:〈2-474하〉

잡아함경 제48:1293경:〈2-356상〉

편집후기

지난 철까지 원고모집에서 발송까지 꼼꼼히 챙겼던 사교반 스님들이 편집실을 떠나면서 해청당은 또 한번 서툰 몸짓에 홍역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편집기간이 여유가 있어 아쉬운 대로 소임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만,

서툰 솜씨로 원고 교정하고 컴퓨터 작업하느라 간경시간을 빼앗겼던 편집위원 스님들.

열심히 찍었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다며 미안해하는 사진 담당 스님.

삽화에 도움을 주신 사교반 스님.

그리고 '포토에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주신 미국에 사는 어느 보살님까지, 해청당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진옥스님, 심명진, 김명희, 노재순, 국화숙, 한인희, 오선수, 김갑숙, 류인석, 심분남, 이원각심, 손태영, 대청거사, 허덕수, 박진석, 허명옥, 조금이, 이정각행, 석능현, 류인석, 심분남, 박보현화, 조덕장, 양필모, 채영숙, 강혜진, 이희예, 신분남, 이희림, 도서출판 보림, 송광사 종무소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해청당'은 기획에서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까지 오로지 학인의 손으로 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고 있지만 한번 발행하는데 이백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인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한점 수행의 향기를 전하고자 맨손으로 시작한 '해청당'이 깊이 뿌리내리고 알찬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하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 - 0205429 - 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해청당 편집실

우. 541-930 ☎ (0661) 755-5300, 5302

2541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1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 명
	사집반	편입 ○ 명
	사교반	편입 ○ 명

※ 가을 방부 변동사항 예고

본 강원은 가을철부터 사미율의 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가을 신입방부는 사미율의 반으로 받게 되며, 예년과 달리 치문반의 경우 신입방부는 받지 않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방부안내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격	치문반 : 사미계 수지자
	사집반 : 치 문 수료자
	사교반 : 사 집 수료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2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승적사본	1부
	승려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사진 (3 × 4)	3매
	방부금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2541년 3월 10일 ~ 5월 13일 (양력)

문 의 처 : (0661) 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東震(동진)에 宗風(종풍)일위 東方曹溪 門을 열어
 十六代 國師繼席 僧之祖宗 宗廟로다
 두어라 東方佛日이 增輝(증휘)토록 모시리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國師展 국보 제56호로 지정된 국사전은 송광사에서 배출한 16국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